

아시아육상대회 불 조성을 위한 경축음악회

'세계는 아시아로, 아시아는 인천으로' 9월이 오면 아시아는 인천문학산 기슭에서 하나가 됩니다. 9월 1일부터 4일까지 인천문학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제 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45개국 1천여명의 아시아 육상선수들이 43개 종목에서 자국의 영예와 세계평화를 위해 뛰고 달리고 던질 것입니다. 우리시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경축음악회를 대대적으로 펼칩니다.

| 행사내용 |

- 오프닝 대북공연 및 공식행사(기념식)
 - 축하공연 <특집 mbc음악캠프>
 - 사회 : 신지, MC몽
 - 출연 : 주얼리, 테이, 강타, 윤도현, 이재원(HOT), 버즈, 은지원, 장윤정, MC몽 등 국내 정상급 가수 10~12팀 (예정)
- ※TV 방영일시(예정) 6월 18일(토) mbc음악캠프 제281회

(출연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시 _ 6월 4일(토) 오후 7시30분

장소 _ 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 내 특설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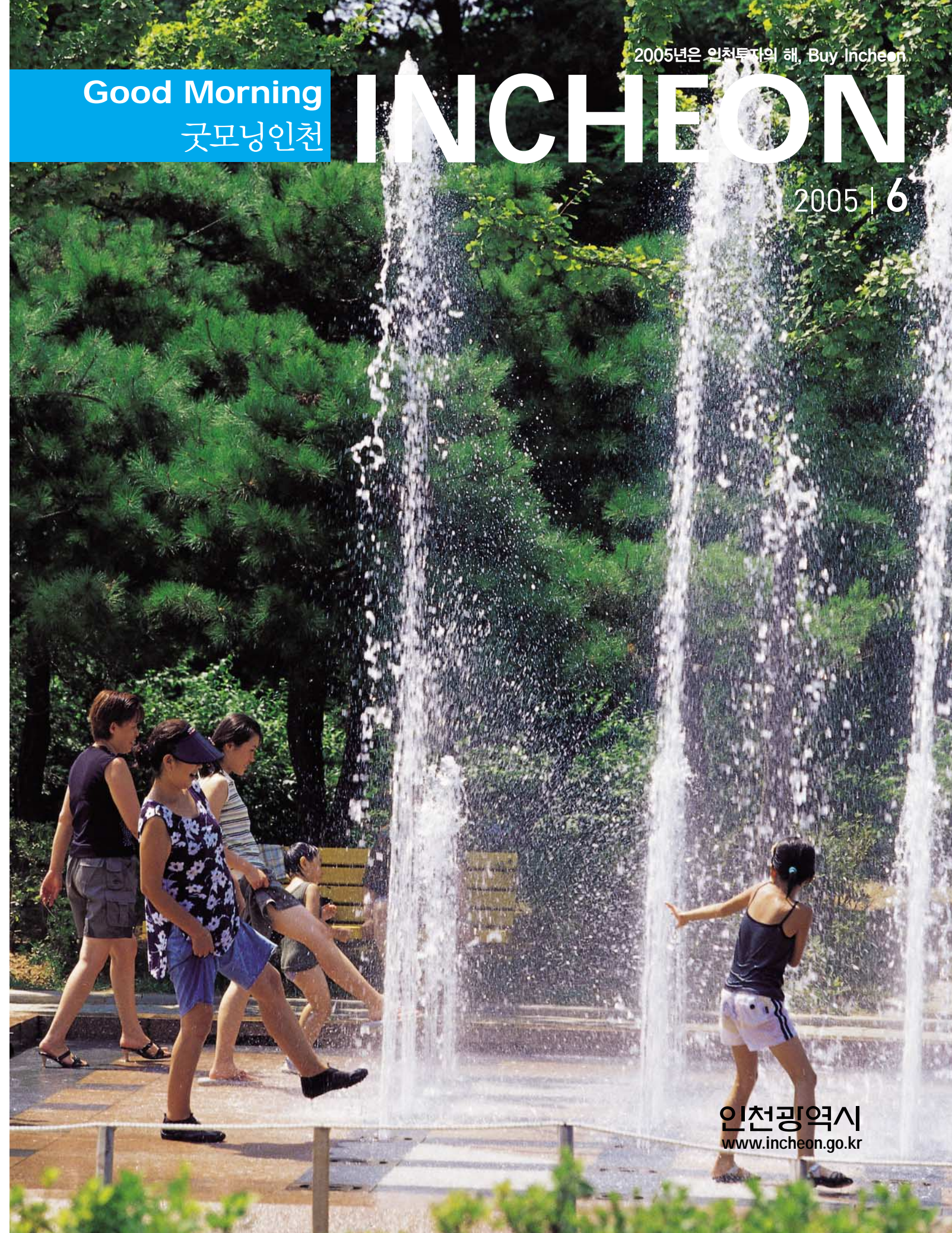
문의 _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440-4023)

Good Morning
굿모닝인천

INCHEON

2005 | 6

2005년은 인천투자해, Buy Incheon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유엔 산하기구 국내 최초 유치

ESCAP ICT개발센터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설립

국내 최초의 유엔 산하기구가 동북아의 관문인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선다. 지난 5월 1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61차 UN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은 연례총회에서 이사회 산하 ICT(정보통신기술) 전문 교육훈련 개발기관인 'UN ESCAP ICT 개발센터(APCICT)' 한국 설립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우리나라가 유엔 기구를 유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IT(정보기술) 강국의 면모를 과시하는 동시에 인천경제 자유구역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쾌거로 풀이된다. 우리시와 정통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모두 1천만 달러 규모의 예산과 부지 등을 지원해 명실상부한 ICT교육훈련 기관의 중추로 발전시켜나갈 방침이다.

송도국제도시 내 테크노파크 안에 들어설 ESCAP ICT 개발센터는 아·태 지역 62개 ESCAP 회원 및 준회원 국가를 대상으로 ICT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 정보화 촉진 및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인력을 대상으로 무상교육 훈련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교육과정으로는 고위직 인사의 정보화 이해 및 마인드 확산을 위한 '고위정책결정자 과정', ICT분야 핵심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관리자 과정', ICT 소양을 갖춘 강사들의 자질과 역량강화를 위한 '강사양성 과정'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 회원국의 ICT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자문, 교육 콘텐츠 개발과 전문화를 위한 공동연구 프로젝트 진행,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의 마련도 아울러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ICT 개발센터를 유치함으로써 한국의 앞선 기술력과 인적자원을 활용해 지역국가들간의 정보격차를 해소, 국제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 IT기업 및 제품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굿모닝인천

2005.6 (통권 138호)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이상수

편집인 공보관 이부현 공보담당 사무관 유승준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지영일

사진 심영보·하장원(시공보관실)·김성환·김정식(자유사진가)



06



10



30

02窓 2005 | 유엔 산하기구 국내 최초 유치

04조명 | 제2연륙교 착공

06인천에서 잘 먹고 즐겁게 사는 법 | 삼림욕장

10그래 어디든 가보는 거야 | 영종도 예단포

14아름다운 도전 | 인천대학교 학교기업 클린에어나노테크

16이달의 공연 | 조지 윈스턴 내한공연 외

20동서남북 | 시민참여형 인터넷 신문 'incheon@news'

22굿인천 굿뉴스 |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시민과 함께 합니다 외

26의정소식 | 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위촉 외

27군·구 풍향계 | 남동구 저소득층 자녀 암 치료비 지원 외

28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식 | 전국 은행장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외

29이슈 | 인천대 국립대 전환

306·25전쟁 55주년 | 1950년 6월 25일 부터 9월 15일까지 인천의 정황

34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 요통

35yummy yummy |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음식점

36정보뱅크 | 노래교실

39Youthzine | '파인트리'와의 만남

40엄마와 함께 문화재 탐방 | ⑤ 초지진(사적 제225호), 덕진진(사적 제226호)

43인천의 물류이야기 | ⑥ 부가가치 물류

44만화로 보는 인천의 최초·최고, 유일시리즈 | ⑥ 최초의 서구식공원 자유공원

46기고 |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노인요양 보험제도

47앗, 나도 이런 일 있었는데 | 텔레마케팅 사기

48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열여덟 번째 사람 | 백하은 사장

52독자마당 | 가족과 함께 떠난 여행 외

55Info Box | 2005년도 신지식인 선발합니다 외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3) 광고문의 (032-440-2042, 2071)



발행처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5년 6월 1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0-84900-42-81 인쇄 인천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굿모닝인천〉은 <http://www.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표지설명 _ 성큼 다가온 여름을 녹여주는 분수의 시원한 물줄기 (서곶 근린공원)

세계는 인천으로 인천은 세계로



미국에 샌프란시스코와 마린반도를 연결하는金門교(金門橋)가 있다면 인천에는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제2연륙교가 있다. 이달 중으로 첫 삽을 뜰 예정인 이 다리를 머릿속에 그려보자. 교량길이 12.3Km, 폭 31.4m에 6차선, 주탑높이가 무려 230.5m. 제2연륙교의 거대한 외관이다.

제1연륙교인 인천공항고속도로에 이어 건설될 제2연륙교는 제2경인고속도로 학익인터체인지(신설 예정)에서 송도유원지-송도국제도시-영종배후단지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연결되는 사장교다. 동북아 중심국가 전략에 없어선 안되는 핵심기반시설이다. 주요 거점에 이르는 교통량을 분산시켜 물류비용을 절감시키는 등 수도권 남부의 왕성한 혈액순환을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부수적으로는 국내의 대표적인 교량으로서 완공과 동시에 지역명소는 물론 관광자원으로서도 높은 가치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교량을 완성시키는데는 1조300억원이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 사업은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영국 AMEC와 인천시가 공동 설립한 'KODA 개발'이 맡는다.

당초 제2연륙교는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 및 경인남부지역을 연계하는 물류축으로서의 교통망 필요에 따라 계획되었다. 무엇보다 제2경인, 영동, 서해안, 서울외곽순환도로와의 연결로 수도권 이남지역 교통수요를 분산시켜야 산업구조 재편을 추진하는 우리시와 국가 경제전략 추진에 힘이 실린다는 현실적 이유가 있었다.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공항, 항만, 공단의 물류 집·배송을 위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시설이다. 뿐만 아니라 공항접근성 확보로 송도국제도시 외자유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연륙교 건설 계획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다. 2002년 경제장관회의에서 배가 드나드는 통로 구실을 할 주경간폭을 700m로 결정하면서 안정성 문제를 제기, 지역 항만업계와 시민단체 등이 주경간폭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시민단체간 마찰이 8개월동안 지속되었고 2008년 8월 조기 완공하기로 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후 논란을 거듭하던 끝에 2004년 12월 말 주경간 폭이 800m로 합의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 1천106억원에 대해 정부와 우리시가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결정되면서 새로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2연륙교 유호상 팀장은 “이달 착공을 시작으로 설계와 건설을 병행하는 방식(Fast-Track)을 활용, 오는 2009년 10월 완공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인천 도심에서 공항고속도로를 이용,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렸으나 이 다리가 건설되면 15분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편집 당시 공식 명칭이 결정되지 않은 관계로 기사에서는 제2연륙교로 표기합니다.)

글 _ 지영일 (편집위원 · openme@incheon.go.kr)

위 사진은 조감도.



인천에서 잘 먹고 즐겁게 사는 법 | 삼림욕장

숲 속을 걸으며 나무가 되어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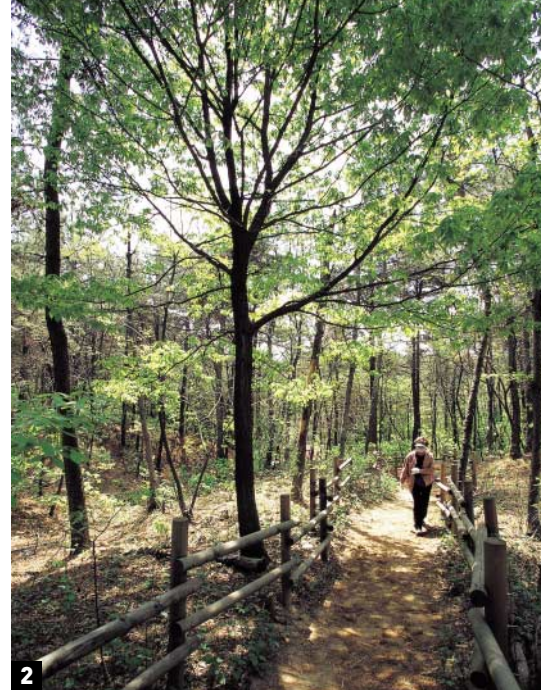
1

키 큰 나무 숲 사이를 걷다보니 나도 어느새 울울창창 거목으로 자란다. 산책이든, 등산이든 숲길 걷기는 가슴 벅찬 행복감과 넘치는 활기를 선물한다. 하지만 좋은 줄 알면서도 인천에서 삼림욕을 하기란 쉽지 않았다. 삼림욕을 즐길만한 변변한 쉼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혹은 잘 모른다는 이유로 멀리 경기도나 강원도 등지를 찾아야 했다. 그러나 이제 그만! 멀리 가지 말고 우리동네에서 삼림욕을 즐겨보자.

인천에 있는 삼림욕장

관모산과 상아산을 끼고 조성되어 있는 **인천대공원**은 백범광장 옆 거수골쪽에 별도의 삼림욕장을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주변 산 전체가 삼림욕장이나 마찬가지. 하늘을 가릴만큼 짙은 메타세콰이어 숲길을 따라 100여 미터 걷다보면 안내판이 좌측을 가리킨다. 이를 따라 조금 오르면 널찍한 소나무 숲이 나오고 곳곳에 벤치와 테이블이 놓여있는 삼림욕장을 만나게 된다. 소풍을 즐기기에 좋겠고 삼삼오오 담소를 나누며 자연을 호흡할 수도 있다. 어떤 이는 벤치에 누워 아득한 낮잠에 빠지고 싶을 수도 있겠다. 이곳은 자연생태관찰로와 연결되어 있어 아이들의 자연학습 장소로도 활용된다. 참고로 앞의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자그마한 호수에 분수가 있으며 주변에 철쭉과 벚나무가 어우러져 사계절 장관을 이루고 있다. 위로 더 올라가면 우측으로 잠시 쉬었다 가도 좋은 거수골 약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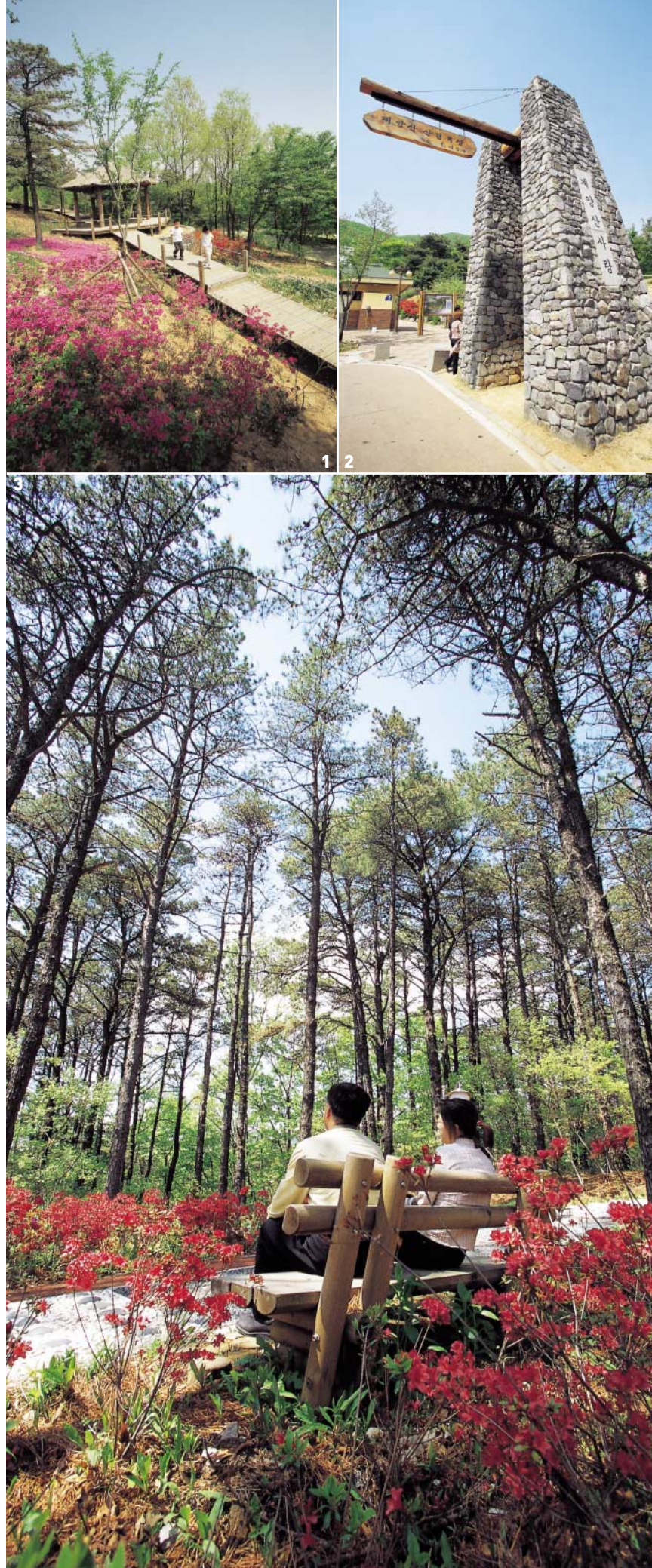
서구 석남3동사무소 부근에는 **호봉산 삼림욕장**이 있다. 등산로 입구까지 도로가 닦여 있고 좌·우측 노면에 주차가 가능해 주민들이 한결 수월하게 삼림욕과 등산을 즐길 수 있다.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가 지난해 모두 2억5천여만원을 투입해 주민휴식 공간으로 만든 이곳은 낙엽활엽수와 상록활엽수, 유실수 등 3개 종별 7천500여 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다. 또 이들 종별 나무를 중심으로 각종 편의시설과 함께 누구나 편하게 오를 수 있도록 등산로를 잘 정비해 놓았다. 철마다 모양을 달리하는 나무를 바라보는 즐거움이 쏙쏙하다. 특히 길 옆 계곡에 마련된 지압코스는 무리한 운동이 힘겨운 이들의 단골 코스다. 힘들이지 않고 짧은 거리를 왕복하며 건강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 지친다 싶으면 정자에서 쉬기도 하고 초입에 준비된 시원한 한 모금 약수로 원기를 돋우기도 한다. 철마산터널과 가좌여중 사이에 입구가 있다.



또한 지난해 5월 **계양산** 자락에도 친환경적인 삼림욕장이 문을 열었다. 계산동 산 18번지 계양공원 일대에 조성된 이 삼림욕장은 인공식재와 조경을 가급적 피하고 계양산 자생수종을 최대한 활용해 ‘친환경적’이란 간판을 달게 되었다. 계양산 토양에서 잘 자라는 소나무림과 참나무림, 때죽나무림, 산사나무림을 비롯해 계수나무림대 등을 주 수종으로 삼아 생태적 환경을 그대로 살렸다. 또한 참나리 외 41종 약 1만5천여 본의 식물을 심어 자연생태 관찰을 위한 학습장 역할을 하도록 야생화 꽃단지도 가꾸놓았다. 탐방객들을 위해 430m의 목재 탐방로를 마련하여 이동과 휴식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입구에 주차장과 화장실이 있고 약수터도 마련되어 있다. 운동과 산책은 물론 만남의 장소로도 유용한 곳이다. 서구로 넘어가는 징맥이고개 우측, 지선사 뒤편 기슭이 계양산 삼림욕장이다.

한편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봉천산**(291m)에도 조출한 삼림욕장이 숨어 있다. 하점면사무소에 차를 대고 좌측 입구로 돌아서면서부터 바로 삼림욕장이 시작된다. 키 큰 소나무가 이어지는 길은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삼림욕장 분위기를 자아낸다. 약 40미터 위쪽으로 걸으면 지압길이 놓여져 있는데 뽀뽀한 신발을 벗어 던지고 한발 한발 내딛다보면 일상의 피로를 시원하게 어루만져 준다. 이곳은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가족끼리 등산하기에 적합한 곳이기도 하다. 봉천산에 오르면 개성 송악산 등 북한의 산야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펼쳐진다. 봉수대로 사용했던 봉천대, 석조여래입상, 봉천사지 등이 또 다른 볼거리이다. 봉천산을 가려면 강화대교를 건너 강화읍을 통과한 후 하점면사무소를 찾으면 된다. 면사무소 뒤편이 봉천산으로, 차는 면사무소 주차장에 놓아도 된다.

1·2 계양산 삼림욕장 3 강화 봉천산
4 인천대공원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길



삼림욕의 효과

울창한 수목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기분을 상쾌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데 그 원인의 하나는 ‘피톤치드’라고 하는 방향성 물질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수목에서 발산되어 인체에 건강한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약 50년 전에 구 소련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교의 V.P.토킨 박사가 발견한 방향성 화학물질이다.

피톤치드는 식물이 상처를 입으면 주위의 미생물을 죽이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분비하는 물질로 피톤은 ‘식물’, 치드는 ‘죽인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미생물에는 유독하지만 인체에는 유익하여, 웬만한 피로나 감기쯤은 숲 속에 머물러 있으면 어느 정도 치료된다. 이러한 효과를 이용한 건강관리법이 삼림욕이다. 나무가 내뿜는 방향성 물질인 피톤치드, 테르펜, 음이온 등을 마음껏 쉼으로써 스트레스 해소, 심폐기능 강화효과 등 피로에 지친 심신의 활력을 되찾는데 요즘에는 치료나 운동 목적뿐만 아니라 관광, 여가 목적으로도 많이 애용된다.

삼림욕 하는 방법

삼림욕을 잘 하려면 가급적 공기가 잘 통하는 가벼운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이 좋고 봄, 여름(6월~10월) 오전 10시~12시가 삼림욕에 최적기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삼림욕 효과가 큰 숲 속을 산책하거나 평상이나 벤치가 있는 곳에서 사색, 담소 등을 가볍게 즐기는 것이 좋다. 동적으로 즐기고 싶다면 스트레칭과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여 적당한 운동을 반복해 가며 삼림욕하는 방법도 있다. 삼림욕의 활동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첫째, 숲에서 보행할 때는 땀 수 있으면 땀을 흘리되, 약간의 피로감이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동시에, 산림에 들어가서 가능한 한 산림의 현상을 탐색해야 하는데, 조류·나비·들꽃·곤충 등을 감상하고, 식물과 열매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

둘째, 숲을 걸으면서 다소 피로하다고 느낄 때, 멈춰 서서 큰 나무를 향해 심호흡을 하여 입으로 더러운 기를 토하고 코로 신선한 기를 들이마시는 심호흡을 한다. 이때 테르펜과 음이온이 심신을 활성화시킨다.

셋째, 휴양(休養)차원의 삼림욕을 위해 나무에 기대어 가벼운 시, 수필 집이나 명상록을 읽으며 고요히 생각에 잠길 수 있도록 한다.

글_ 지영일 (편집위원 · openme@incheon.go.kr)
사진_ 김정식 (자유사진가 · jsjsm@incheon.go.kr)



고요한 바다 ... 갈매기 제 울음에 놀라다

섬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건만 바다의 모습은 늘 새롭다.

이제는 '동네섬'이라고 할 만큼 가까이 있고 더 이상 새로울 것 없는 영종도이지만

월미도 선착장 앞에 서면 가슴이 늘 설렌다.

10여분간의 짧은 항해이지만 배를 타는 설렘은 아이나 어른이나 다를 바 없다.

섬 뒤편의 바다

영종도의 옛 이름은 자연도(紫燕島), 풀이하면 '자줏빛 제비섬'이다. 제비 날던 그 섬에 이제는 비행기들이 은빛 날개를 반짝이며 이리저리 날아다닌다. 용유도와 한몸이 되고 기다란 다리가 놓이면서 영종도는 섬이라기보다 커다란 땅땸기로 변하고 있다. 사람들은 바닷가를 간다하면서 그 바다를 지나쳐 용유도 해안으로 나가거나 그 섬을 발판 삼아 무의도나 신·시도로 건너간다. 정말 그 섬에는 바다가 있거나 한 것일까. 영종도를 사방으로 나누는 섬의 주봉은 백운산(白雲山)이다. 해발 256m의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섬 속에 솟은 덕분에 늘 구름이 걸쳐 있어서 얻은 이름이다. 이 산은 섬을 크게 운남·중산·운서·운북 마을로 나눴다. 예단포는 산의 북쪽, 운북마을 쪽에 있다. 예단포 가는 길은 꼬불꼬불, 텅텅탈...옛 영종도의 운치를 한껏 느끼게 해준다. 포구는 제 모습을 보여 주기 앞서 자신의 체취를 먼저 바람결에 실어 보내줬다. 비릿한 향과 짝잘한 냄새가 풍겨져 왔다. 그리고 척후병 갈매기 한 마리까지 마중 나왔다. 오솔길을 지나 집들이 다닥다닥 붙은 포구마을의 골목을 빠져 나오자 바다는 제 품을 활짝 열어 놓고 있었다. 바다가 그곳에 있었다. 새삼 '발견'이라는 단어가 생각났다. 갯벌과 파도 그리고 고깃배를 품고 있는 바다가 그 섬 뒤편에 숨어 있었다.

품 너럭한 바다

지금은 쇠락한 포구에 불과하지만 예단포는 한때 영종도에서 가장 번잡하고 부유했던 마을이다. 조기 파시가 이곳에서 섰고 각종 어선들이 기항을 하면서 사람과 돈이 늘 넘쳐났다. 도시 골목처럼 집들이 빼곡해서 외지인들은 길을 잃기 십상이었다. 예단포(禮丹浦)라는 이름은 옛날 수산업이 성황을 이루던 시절에 효자가 많은 마을이라 하는 예대포(禮待浦)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곳 사람들은 그 바다를 간혹 '여단포'라고도 부른다. 구한말 병인양요 때 강화도로 향하던 프랑스군들이 이곳에 상륙해 여인들의 목을 찢다는 소문에서 얻은 으스스한 이름이다. 예단포는 왼쪽에 신도, 오른쪽에 세어도 그리고 중앙에 강화도를 두고 있다. 얼마나 가까운지 마니산의 참성단이 보이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호수처럼 잔잔한 바다. 수목원처럼 고요한 바다. 이곳에선 갈매기 울음조차 조용하다. 잔파도에 이리저리 쓸리며 고기를 낚는 쪽배들의 모습이 한폭의 동양화를 그려낸다. 한가롭게, 그것도 거의 혼자 독차지할 수 있는 바다가 이 바다 말고 또 있을까. 예단포는 그 바다를 찾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자신의 품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글 _ 유동현 (편집위원 · batubatu@incheon.go.kr) / 사진 _ 김정식 (자유사진가 · jsjsm@incheon.go.kr)

예단포 가는 길 _ 영종선착장에 내려 영종·용유출장소 쪽으로 향하면 용공사 입구 부근에 <예단포> 이정표가 나온다. 금산초등학교를 지나 바다 쪽으로 달리면 포구가 나온다. 예단포에는 '바다가 보이는 집' 등 몇 개의 횃집도 있다.

재미있는 과학탐구 >>>

인천과학상설전시관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내에 있는 인천과학상설전시관은 직접 보고 만지고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과학과 친해질 수 있도록 실험기구와 장비 그리고 전시물을 갖춰 놓은 공간이다. 전시관은 총 4층으로 실내 전시실과 지구 표면을 구성하는 암석과 광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암석학습관, 우리 조상들의 과학적 지혜와 우수성을 엿볼 수 있는 전통과학학습원 그리고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는 천체투영실 등으로 되어 있다. 보유하고 있는 전시물은 190여 종에 달하며 그 중 30% 정도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들이다. 1층 꿈돌이관에는 해양수족관과 민물, 열대어, 해파리 수족관 그리고 각종 요술거울과 과학원리를 응용하여 만든 과학놀이기구들이 있다. 2층 자연탐사관에는 지구와 우주에서 발견되는 각종 광물과 암석이 즐비하고 다양한 식물과 포유류, 어류, 조류, 갯벌의 생태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이곳에는 천체투영기를 갖춘 돔 스크린이 있어 사계절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다. 3층 기초과학체험관에서는 중력, 역학, 빛, 소리, 에너지 등 여러가지 물리, 화학, 생물학적 과학 원리들을 각종 기구들을 통해 터득할 수 있고 4층 미래과학관에서는 생명공학과 정보통신, 우주항공, 신소재, 에너지, 로봇 등에 관한 각종 원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용안내 _ 화요일~일요일(오전 10시 ~ 오후 5시) /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 / www.ienet.re.kr / 880-0792

케케묵은 세월의 대 >>>

용궁사



용궁사는 백운산 기슭에 자리 잡은 사찰이다. 절은 웅장하지 않지만 케케묵은 세월의 때가 고스란히 묻어난다. 신라 문무왕 10년(670)에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백운사라고 칭했으며 이후 구담사라고도 불렸다. 현재의 용궁사란 이름은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철종 5년(1854)에 이 절을 대대적으로 수리한 후에 붙인 것이다. 지금도 요사채에는 그가 직접 쓴 ‘龍宮寺’라는 편액이 걸려있다. 대원군은 자신의 아들이 용상에 오르기 전 까지 바닷길 건너 산 속에 있는 이 절에 한동안 머물며 때를 기다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관음전에 유사시 자신의 몸을 피할 수 있는 은신처로 다락방을 마련했고 인근에 군사훈련장을 설치했다고 전해지나 지금은 그 흔적을 볼 수가 없다. 용궁사 경내에는 관음전, 요사채, 용황각, 칠성각 그리고 11m 높이의 미륵불이 있다. 1884년에 건립된 관음전에는 한눈에 봐도 오래전에 그려졌을 것으로 느껴지는 고풍의 후불탱화가 한점 걸려 있다. 절 마당에 우뚝 서있는 한 쌍의 노거수(老巨樹)는 용궁사가 천년고찰이라는 연륜을 말해준다. 약 1,300년의 나이로 추정되는 두 그루의 느티나무가 세월의 무게가 힘에 겨운 듯 굽은 가지를 쇠파이프에 의지하고 사찰을 굽어보고 있다. 산사에 오르는 약 1km의 오솔길은 사바세계로 다다르는 길처럼 무성한 나무에 싸여 고요하게 굽어 있다.

문의 _ 746- 1361

싱싱한 바다의 기운 >>>

영종선착장 어시장



영종도를 제대로 즐기려는 사람들은 영종대교를 건너지 않고 월미도에서 배를 탄다. 예전에 ‘구읍나루터’라고 불리던 영종선착장에 내리면 언제나 싱싱함을 느낀다. 선착장 바로 옆에는 조그만 어시장이 자리 잡고 있다. 광어, 우럭, 도다리 등 인천 앞바다에서 잡힌 생선들이 커다란 고무함지 안에서 펄떡거린다. 이곳에서 원하는 생선을 고르면 즉석에서 횡감을 떠준다. 근처 횡집으로 가서 야채값과 매운탕 끓이는 비용을 지불하면 싱싱하고 푸짐하게 ‘바다의 기운’을 맛볼 수 있다.

우리 가족 모두 강태공 >>>

만정레저 낚시터



섬 속에 또 다른 물이 있다. 3만5천평 거대한 웅덩이에 물이 담겨져 있다. 만정낚시터는 영종 내에 있는 민물낚시터이다. 주 5일 근무시대를 맞아 강태공 혼자만 즐기는 낚시가 아니라 가족 모두 휴식을 취하며 즐길 수 있는 가족레저형 낚시터이다. 이제는 낚시터도 웰빙시대를 맞고 있다. 예전처럼 허허들판에서 밤이슬 맞으며 별을 친구 삼으며 하는 낚시가 아니라 오염되지 않은 환경과 쾌적한 시설에서 편안하게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다. 앞 쪽의 바닷가 갯벌과 뒤쪽의 석화산 줄기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공기 속에 그야말로 ‘신선놀음’을 할 수 있는 만정낚시터는 모두 3호지로 구성돼 있다. 각각 5천평 규모인 1호지와 2호지는 붕어전용터와 붕어, 잉어, 향어, 역돔 전용터로 구분되고 2만5천평의 3호지는 수도권 유일의 토종붕어 전용터이다. 특히 240석 좌대가 마련돼 있는 3호지에는 좌대마다 전기온돌 난방이 설치돼 있어 뜨끈한 구들방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착각을 들게 한다. 낚시터에는 고급 레스토랑 분위기의 식당, 인공폭포, 산책로 등이 있다.

이용안내 _ www.manjung.co.kr / 747-1133



이론만 가르치는 학교는 NO! 가파른 취업고개 거뜰히 넘는다

대학은 졸업했지만 일할 곳이 없어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하는 청년실업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럴 때 청년들의 취업에 숨통을 틔워주는 소식이 있어 반갑다. 지난해 9월 인천대학교에 설립된 학교기업 '클린에어나노테크' (대표 김내현 · 기계공학과 교수) 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취업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안에 기업을 설립하고 생산 라인을 갖춰 제품을 생산하는 '학교기업' 제도를 만들고 공모했다. 우리 인천에서는 인천대학교 기계공학과를 비롯해 3개 과가 여기에 응모했는데 김내현 교수의 클린에어나노테크가 학교기업으로 선정된 것이다.



1 클린에어나노테크의 4인방.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김내현 교수 2·4·6 환기장치에 들어가는 전열교환기 3 천정에 설치된 환기장치 5 연구와 개발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클린에어나노테크의 생산제품은 각종 건물에 들어가는 환기장치에 필요한 전열교환기와 전열교환기가 내장돼 있는 환기장치. 환기장치는 주상복합건물처럼 창문을 열 수 없는 경우 강제 환기를 시켜주는 기계다. 김 교수가 3년여의 연구 끝에 개발한 전열교환기는 환기장치가 실내 공기와 외부공기를 순환시킬 때 빼앗기는 열을 최소화해 환기장치의 열효율을 높이고 전기료를 20% 정도 아낄 수 있다. 여기에 활성화된 미립자 등을 첨가해 공기청정의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다.

클린에어나노테크는 교육부를 비롯해 우리시와 인천대에서 2년간 13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공장을 짓고 설비를 갖추고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9월 인천대 이공관 뒤편에 사무실을 마련해 외주 생산을 시작했고 5월부터는 학교 안에 공장을 짓고 직접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클린에어나노테크의 전담 직원은 모두 3명. 생산직 직원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올해부터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이 현장실습 과목에서 직접 생산라인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기업은 생산직 직원을 따로 두지 않아서 이윤창출에 유리하고 학생들은 생산라인에서 제품 설계, 품질검사 등을 직접 체험해 기량을 연마할 수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이다.

클린에어나노테크는 본격 생산에 앞서 2개월 만에 1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학교기업인 만큼 수익이 발생하면 50%는 기업에 재투자되고 25%는 직원들의 인센티브, 25%는 학교에 장학금으로 다시 돌아간다.

현재 시장규모는 전열교환기 100억원, 환기장치 3천억원 정도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20여개 업체에서 환기장치를 생산하고 있는데 전열교환기는 전량 일본제품을 수입해서 사용해 왔다. 새집증후군 문제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지난해 환경부가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법을 발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동주택의 공기질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시장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클린에어나노테크가 전열교환기를 국산화했다는 것은 큰 '사건' 이 아닐 수 없다.

클린에어나노테크는 앞으로 항균기능을 갖춘 은 나노 입자 등을 활용해 청정기능을 추가시킨 제품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학교기업 클린에어나노테크가 IMF 이후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의 이윤을 동시에 추구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글 _ 정경애 (happyjka@incheon.go.kr) / 사진 _ 김정식 (자유사진가 · jsjsm@incheon.go.kr)

김현숙현대무용단

오픈스테이지 SOMA 청춘



이번 오픈스테이지의 기본 테마는 '청춘'이다. '청춘'에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이 안무자들의 안무 의도에 따라 다양한 각도로 연출 된 세 작품 청춘 I·II·III이 선보여 진다. 객원안무자로 초청된 강희정(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강사)과 최일규(군댄스컴파니 대표)의 독창적인 작품에서 청춘의 느낌을 만끽할 수 있다.

일시 _ 6월 5일(일) 오후 7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티켓 _ 무료

문의 _ 김현숙현대무용단 (760-8862, 017-342-1162)

어린이 환경뮤지컬 파란나라 마법사



이 작품은 우리에게 친숙한 동화 <오즈의 마법사>를 바탕으로 마법사를 통해 심각해져가는 환경을 고발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아동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각색한 아동용 환경 뮤지컬이다.

일시 및 장소 _

서구문화회관 6월 17일(금) ~ 18일(토)

계양문화회관 6월 24일(금)

금요일 오전 10시 20분 · 11시 20분

토요일 오전 10시 40분, 오후 2시 · 4시

티켓 _ 일반 12,000원 / 할인 8,000원
단체 5,000원

문의 _ 꼬마세상

(572-4281, 016-2500-560)



한여름 밤 실내악으로의 초대

무더위가 점점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6월 초,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은 한여름 밤의 무더위를 식혀 줄 실내악 연주회를 연다. 자유공원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곁에 박희정(첼로), 김진승(바이올린), 장은주(피아노)의 연주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일시 _ 6월 9일(목) 오후 6시

장소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대공연장)

티켓 _ 무료 예약 및 문의 _ 760-3466~7

조지 윈스턴 내한공연



뉴에이지 음악의 거장 조지 윈스턴이 인천에 온다. 그는 'December'라는 앨범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뉴에이지 음악을 선보였다. 조지 윈스턴은 지난 30년간 전통민요, 블루스, 재즈

등 전통음악에서 받은 영향은 물론, 동시대 음악인들의 재능을 동시에 흡수하여 자신의 악기, 피아노로 소화해 왔으며,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향유해온 몬타나의 대자연을 음악적 소재로 활용해 오며 그의 말대로 '전원적 포크 피아노' 음악을 만들어 왔다.

일시 _ 6월 28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A석 40,000원 / B석 30,000원

문의 _ 하늘기획 (322-2121)

전제덕 재즈 하모니카 연주회



부평문화사랑방에서는 재즈 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을 초청하여 감미롭고 수준 높은 음악의 세계를 들려준다. 국내 유일의 재즈 하모니카 뮤지션 전제덕은 장애극복의 인간신화를 넘어서, 음악성만으로도 이미 찬사를 받고 있는 뮤지션이다. 제2회 한국음악상 최우수 재즈&크로스오버상을 수상하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다양한 세션활동과 공연활동을 통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일시 _ 6월 24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_ 부평문화사랑방

티켓 _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문화원회원 및 문화사랑방회원 20%할인)

문의 _ 505-5995

뉴턴의 악몽



학원리를 익히게 해줄 것이다.

일시 _ 6월 14일(화) ~ 17일(금) 오후 3시 30분 · 6시

장소 _ 학산소극장

티켓 _ 무료 (단, 사전 전화 예약 없이 당일 공연 관람 불가)

문의 _ 남구학산문화원 (866-3993)

2005 스페이스 빔 옥상영화제 신新애愛마馬천국



옥상영화제는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도 사실상 방치(?)되었던 옥상을 새로운 체험과 또 다른 만남을 가능케 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누구나 부담 없이 자유롭게 어울리며 잠깐이나마 일상의 권태와 무게를 벗어던지고 일탈의 짜릿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작은 축제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 영화제는 올해는 특히 옥상이 갖는 공간적, 심리적 측면을 프로그램 속에 적극 반영하여 옥상영화제만이 지닌 색깔을 강화하려 노력했다.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상영작과 시간대를 지난해에 비해 2배 늘려 골라볼 수 있는 재미를 느끼게 하였고, 젊고 실험적인 단편영화 감독들의 장으로도 제공된다. 그 외 작은 이벤트를 통해 행사 참가자들 간의 유쾌한 만남을 주선한다.

일시 _ 6월 9일(목) ~ 11일(토) 오후 7시

장소 _ 스페이스 빔 갤러리 옥상

문의 _ 422-8630 / www.spacebeam.net

연수구 여성단체협의회 주최 어린이 사생대회 작품전
5월 30일~3일 연수갤러리(연수구의회)

남구 미술인협회전
5월 31일~6일 신세계 갤러리

한국화 대대전
1일~2일 중합문화예술회관 대 · 중앙전시장

김연옥 개인전
1일~2일 중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장

제6회 대한민국 인터넷 서예 문인화대전 전시회
3일~9일 중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장

김대점 개인전
3일~9일 갤러리 진

옛 사진엽서로 보는 월미도와 인천항
3일~9일 중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장

관광기념품 공예품 경진대회
3일~9일 중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장

제1회 흥정희 개인전
3일~9일 중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장

연수구 서예협회 정기전 및 학생 회화대회 작품전
4일~10일 연수갤러리(연수구의회)

민영옥 서양화전
7일~13일 신세계 갤러리

제17회 인천서예대전 및 초대 추천작가전
10일~16일 중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장

제17회 인천광역시 서예대전
10일~16일 중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장

제1회 유석애 문인화개인전
10일~16일 중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장

인서회
10일~16일 중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장

찾아가는 미술전
10일~23일 갤러리 진

연수구 미술협회 주최 어린이 사생대회 작품전
11일~17일 연수갤러리(연수구의회)

이은재 도자전
14일~20일 신세계 갤러리

제41회 인천광역시사진대전 우수작품 전시
17일~23일 중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장

제9회 황해환경사진대전
17일~23일 중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장

함세덕 희곡상 공모

'학산 젊은 연극제'에서는 인선이 낳은 뛰어난 극작가 함세덕의 극적 성취를 이어받아 역량있는 작가를 양성하고 우수한 희곡을 발굴하기 위한 <함세덕 희곡상>의 작품을 공모합니다. 당선작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학산 젊은 연극제'의 공연제작 지원과 작품집 발간지원 등 다각적인 후원을 합니다. 참신하고 역량있는 작가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공모부문 _ 순수창작 희곡 1편

(공연시간 100분 내외로 자유소재)

상 금 _ 당선작 2,000만원과 상패

응모자격 _ 신인 및 기성작가 (등단 후 10년 이내)

응모기간 _ 7월 11일(월) ~ 30일(토)

발 표 _ 8월 25일(목) 홈페이지 (www.hsplay.net)

문 의 _ 학산문화원 '학산 젊은 연극제'

<함세덕 희곡상> 담당자 앞 (866-3926)

인천시립합창단 제95회 정기연주회

인천-광주 시립합창단 합동공연



‘최상의 완벽함’이라는 평과 함께 세계 정상급 합창단으로 발돋움 하고 있는 인천시립합창단이 신선한 기획력과 수준 높은 발성으로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 광주시립합창단과 한 무대에서 화음을 맞춘다.

일시 _ 6월 7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문의 _ 인천시립합창단 (420-2784)

인천시립극단 제39회 정기공연

타스마니아

〈타스마니아〉는 현대인들의 정신질환을 다룬 작품으로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과 이로 인해 빚어 지는 상처를 보듬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지닌 특성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며, 그들이 겪어가는 아픔과 치유의 과정 또한 그대로 우리의 이야기이다. ‘타스 마니아’는 호주 남단에 실재하는 섬으로 작품에서는 어두운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이상향이다.

일시 _ 6월 16일(목) ~ 26일(일) /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4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_ 수봉문화회관 소극장
티켓 _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문의 _ 인천시립극단 (438-7775)



인천시립교향악단 제 261회 정기연주회

피아니스트 한동일 초청공연



한국이 낳은 음악 신동이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한동일이 협연하는 이번 정기연주회는 노르웨이 출신 아릴드 레머라이트 (Arild Remmereit)가 객 원지휘자로 지휘봉을 잡는다. 그는 6세 때 첫 피아노 레슨 받았으며 8 세 때 처음 트럼펫 레슨을 받았다. 보이 소프라노로서의 경력 또한 갖고 있으며 십대에는 기타, 피아노, 신디사이저를 연주하는 팝&재즈 밴드에 합류했다. 파리, 프랑스 국립 오페라에서 정명훈의 부지휘자로 활동했던 그는 카르코프 우크라이나 주립 오페라의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역임 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베토벤의 서곡(에그몬트) 바단조 작품.84와 피아노 협

주곡 제3번 다단조 작품.37 그리고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제5번 마단조 작품.64를 들려준다.

일시 _ 6월 16일(목) 오후 7시 30분
티켓 _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문의 _ 인천시립교향악단 (420-2781)

인천시립무용단 제54회 춤마당 흥마당

창작 작품 특별공연

특별 공연으로 우수 단원의 창작작품을 ‘춤마당 흥마당’이 무대에 올린다. 훈련장 구경 속(작품명: 헌신버려 꽃신줄게)을 비롯해 이선초(건망증...내 삶의 비타민)와 김혜진(하늘, 맞은편)이 안무가로 나선다. 이 공연은 ‘소극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 ‘창작공연’이란 타이 틀도 함께 붙는다.

일시 _ 6월 29일(수) 오후 7시 30분
티켓 _ R석 5,000원 / S석 3,000원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문의 _ 인천시립무용단 (420-2788)



일	토	금	목	수	화	월
5	4	3	2	1	14	13
김현숙 현대무용단 오픈스테이지 (sona 청춘) 오후 7시 종합문화예술회관외공연장 무료 760-8862 송승현의 뮤지컬 〈어린이난타〉 오후 2시·5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2만5천, 2만 1966-6551	시립무용단 토요상설무대 공연장 / 무료 / 420-2788 송승현의 뮤지컬 〈어린이난타〉 오후 2시·5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 2만5천, 2만 1966-6551 인형창작극과 함께하는 소리길 찾기 오후 2시 / 계양청소년수련관 3천, 2천 / 546-7646	비야올리 영아티스트 콘서트 오후 7시 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조대 888-0808 제157회 금요예술무대 타(打鼓) 리(樂) 〈두드림의 즐거움〉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외공연장 무료 420-2717	성산소년소녀합창단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1만, 5천 514-4542	청소년과 함께하는 빌레니움 심포니 제5회 정기연주회 (인전·광주 합동연주회)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1만, 7천, 5천 438-6040	인천YMCA 여성합창단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조대 431-8161 제1회 인천심비안단 기묘제 오후 7시 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2만원 762-8837	인천YMCA 여성합창단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조대 431-8161 제1회 인천심비안단 기묘제 오후 7시 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2만원 762-8837
12	11	10	9	8	15	14
인천6·15민족대회 1주년기념 〈겨레하나동일음악제〉 오후 7시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1만 / 522-0615 발림무용단 정기공연 〈이지선의 전통춤〉 오후 4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조대 / 011-310-6500	소외계층을 위한 인천지역문화운동 〈후크선장〉 오후 1시 종합문화예술회관외공연장 무료 813-8040	제18회 금요예술무대 〈올겨울 우리라!〉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외공연장 무료 420-2717	성산소년소녀합창단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1만, 5천 514-4542	청소년과 함께하는 빌레니움 심포니 제5회 정기연주회 (인전·광주 합동연주회)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1만, 7천, 5천 438-6040	인천YMCA 여성합창단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조대 431-8161 제1회 인천심비안단 기묘제 오후 7시 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2만원 762-8837	인천YMCA 여성합창단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조대 431-8161 제1회 인천심비안단 기묘제 오후 7시 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2만원 762-8837
19	18	17	16	15	14	13
제14회 인천무용제 오후 5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무료 872-7873	시립무용단 토요상설무대 오후 5시 종합문화예술회관외공연장 무료 420-2788 제14회 인천무용제 오후 5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무료 872-7873	제19회 금요예술무대 피니드의 〈Color of Brass Concert〉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외공연장 무료 / 420-2717 연수구립합창단 정기공연 〈자연이 웃음지네〉 오후 7시30분 연수구청대강당 810-7087	시립교향악단 제261회 정기연주회 (한동일 초청연주회)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1만, 7천, 5천 420-2781	인천YMCA 여성합창단정기연주회 (신인왕수상자 초청음악회) 오후 7시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1만, 7천, 5천 438-6040	인천YMCA 여성합창단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조대 431-8161 제1회 인천심비안단 기묘제 오후 7시 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2만원 762-8837	인천YMCA 여성합창단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조대 431-8161 제1회 인천심비안단 기묘제 오후 7시 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2만원 762-8837
26	25	24	23	22	21	20
제2회 해설이 있는 무대(25~27) 오후 5시 시민교육연극센터 무료 864-4660 웅지이는 그림동화연구 〈강이지뽀〉 오후 2시, 4시 계양문화회관공연장 1만, 6천, 5천 551-6602	제4회 청소년 문화축제 자유시간 〈보물상자〉 오후 2시 / 종합문화예술회관외공연장 / 무료 / 813-8040 구보면스튜디오 정기공연 오후 7시 / 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1만 / 513-7802 제4회 황해페스티벌 오후 7시 / 죽안 옛 시민회관 실타 / 무료 / 423-0442 웅지이는 그림동화연구 〈강이지뽀〉 오후 2시, 4시 / 계양문화회관공연장 1만, 6천, 5천 551-6602	교육연극 〈신촌비둘기〉 오후 7시30분 / 연수구청대강당 810-7087 뮤지컬 〈텔무드동화〉 오전 10시·11시2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 1만, 4천 / 2634-6884 제160회 금요예술무대 〈러시아의 알렉스 벤드와 에블로스〉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아외공연장 / 무료 / 420-2717	제14회 인천가톨릭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조대 011-721-5449	인천무형문화제(제1호, 4호, 10-나호) 합동 발표회 오후 7시 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4천 465-1565	제14회 플라타네트축제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무료 019-367-1663 시립무용단 특별창작 공연 춤마당·흥마당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5천, 3천 420-2788	제14회 플라타네트축제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무료 019-367-1663 시립무용단 특별창작 공연 춤마당·흥마당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5천, 3천 420-2788
27	26	25	24	23	22	21
제2회 해설이 있는 무대 오후 7시30분 시민교육연극센터 무료 864-4660	제2회 해설이 있는 무대(25~27) 오후 5시 시민교육연극센터 무료 864-4660 웅지이는 그림동화연구 〈강이지뽀〉 오후 2시, 4시 계양문화회관공연장 1만, 6천, 5천 551-6602	교육연극 〈신촌비둘기〉 오후 7시30분 / 연수구청대강당 810-7087 뮤지컬 〈텔무드동화〉 오전 10시·11시2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 1만, 4천 / 2634-6884 제160회 금요예술무대 〈러시아의 알렉스 벤드와 에블로스〉 오후 7시30분 / 종합문화예술회관 아외공연장 / 무료 / 420-2717	제14회 인천가톨릭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조대 011-721-5449	인천무형문화제(제1호, 4호, 10-나호) 합동 발표회 오후 7시 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4천 465-1565	제14회 플라타네트축제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무료 019-367-1663 시립무용단 특별창작 공연 춤마당·흥마당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5천, 3천 420-2788	제14회 플라타네트축제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무료 019-367-1663 시립무용단 특별창작 공연 춤마당·흥마당 오후 7시30분 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5천, 3천 420-2788

※ 공연 및 전시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시민 ‘발품’으로 만든 e-신문

시 민 참 여 형 인 터 넷 신 문 ‘Incheon@news’가 높은 기대속에 최근 창간됐다. 여러 달의 준비끝에 지난 5월 9일 창간된 이 신문은 ‘시민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표방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보매체로서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 Incheon@news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시민참여형 신문으로서 우리시에서 발행한다는 점. 시민들에게 시민 홍보사항이나 시정소식을 단편적인 형태로, 그것도 일방적으로 전달하던 방식을 탈피, 보다 다양한 정보를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일부 내용으로 시정소식을 전하기는 하지만 다양한 섹션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시민기자 자격으로 참여한 이들의 손에 의해 직접 만들어진다는 점이 눈이 쏠린다. 이처럼 시민들의 손을 거친 소식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제공됨으로써 기존의 ‘반상회보’나 ‘뉴스레터’틀을 벗어나 살아있고 풍부한 읽을거리를 다양하게 선보일 수 있다. 시민기자의 입장에서라도 시정 모니터링 활동과는 구분되는 역할이 주어진다.



신문은 ‘행복한 인천’, ‘웰빙인천’, ‘인천피플’, ‘시민기자실’, ‘인천브리핑’, ‘Buy인천’ 등 6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고 23개 세부 섹션을 통해 시민기자들의 눈에 비친 생활 주변의 훈훈한 이야기, 감동있는 이야기, 현장리포트 등과 전문기고가의 글을 비롯한 주요 시정 뉴스 등의 기사들이 신문을 장식한다. 이 신문을 만들기 위해 우리시는 이미 3월부터 준비에 들어가 창간준비호를 주 2회 11호까지 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술적 미비점과 내용 보완에 주력했다. 또한 자발적으로 지원한 시민기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신문제작과 기반 구축에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기사작성법, 카메라 사용법 등 기초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역량을 높이고 양질의 기사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꾸준히 준비해 왔다. 그 결과 지금까지 1만8천3백여명의 구독자를 확보했고 500명 가까운 시민기자가 등록, 속속 현장소식을 올리고 있다. 현재는 주 2회 화, 목요일 각각 발행되며 발행 즉시 구독자들에게 메일로 배달된다. 향후 주 3회로 증회, 더욱 다양하고 유용한 소식과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정보화담당관실 한길자 담당관은 “우리시의 새로운 시민참여형 인터넷신문을 통해 생활의 활력은 물론 인천 시민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획득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알찬 신문으로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밝혔다.

신문은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으며 인터넷신문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신문홈페이지(enews.incheon.go.kr)를 방문하여 구독신청이나 시민기자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 _ 정보화담당관실 (440-3286), <http://enews.incheon.go.kr>

글 _ 지영일 (편집위원 · openme@incheon.go.kr)

뉴스 있는 곳에 그들이 있다

창간 후 첫 기획회의다. 구청신문 기자, 타 인터넷매체 기자, 평범한 시민 등 모두 14명의 시민기자가 우리시 사이버시티센터 회의장에 모였다. 그간 간담회다, 교육이다 해서 몇 번의 자리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신문 제작을 위한 기획회의는 처음인 것이다. 기사의 선별기준, 기사구성의 기본방향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한껏 풀어낸다.

“글도 중요하지만 시각적 효과도 중요한데 정작 사진촬영법이나 이미지조작 방법을 몰라 답답하다.”, “전문가다운 글을 쓰고 시민기자로서 명예롭게 활동하고 싶지만 개인역량이 부족해 아쉽다.”

욕심만큼 글쓰기가 어려운 심정을 토로한다. 한편에서는 스스로 공부하고 연습하는 노력과 시민기자간 교류와 공동취재 등의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제시한다. 물론 담당부서의 전폭적인 지원의 말도 잊지 않았다.

시민기자 신중균 씨는 “시민기자들도 성급한 기대나 실망에 빠지지 말고 일정기간 글을 올리고 품질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다보면 신문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며 “필요한 교육, 전용공간 마련, 취재원에 대한 접근 등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 시의 지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신문 편집팀은 앞으로는 격주로 기획회의를 진행해 그때그때 지역현안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와 알려야 할 소식이 무엇인지 취사선택할 예정이다. 신문에 어느정도 탄력이 붙으면 편집위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생생하면서 유용하고, 그러면서도 접하기 편안한 매체를 만들기 위해서다.



국인천 국뉴스

캐나다 토론토 자동차부품 수출물류센터 개소



북미 지역 자동차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캐나다 토론토 자동차부품 수출물류센터가 지난 4월 27일 개소했다. 물류센터는

10개 기업이 컨테이너 2개 분량의 물품을 1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는 1,354㎡ 규모이며, 현재 우리시의 (주)코다코 등 10개 부품업체가 센터 사용을 희망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업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시 이번 북미 지역 물류센터 설치와 수출상담회를 통해 적기공급에 따른 공신력 확보와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인천기업 자동차부품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_ 시 과학기술과 440-2812

버스정보시스템 체계 구축

내년부터 버스 운행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BIS(버스정보시스템)체계가 구축된다. 우리시는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총 79억7천여만원을 들여 BIS 체계를

갖춘 뒤 1개월간 시범운행을 거쳐 전면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적용대상은 인천-부천-서울을 잇는 버스노선 가운데 통행량이 많은 10곳을 우선 선정했다. 이용자들은 버스가 일정하게 배차되는지 여부와 무정차통과, 정차위치 준수, 개문발차 등 불법 부당운행을 감시할 수 있고, 시에서는 체계적인 버스 운행관리자료를 통해 노선 조정이나 요금정책, 배차시간 등 운행상태를 손쉽게 감독할 수 있다.

문의 _ 시 교통기획과 440-3863

중앙공원길 등 교통운영개선사업 마무리



대표적인 상습정체 구간인 중앙공원길과 문화회관길에 대한 교통 운영개선사업이 마무리되었다. 중앙공원길(종합터미널 입구~인

천YMCA사거리·1.65km)은 시청방향을 3개 차로로, 연수동방향을 1개 차로로 변경하였으며 문화회관길(교통공원~붉은고개사거리·1.65km)은 시청방향을 1개 차로로, 연수동 방향을 3개 차로로 변경했다.

이와함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한 돌출형 버스승강장 및 노상주차장을 설치했으며 터미널4거리에 보행자들을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scrambled crosswalks) 설치, 인천YMCA 4거리, 터미널 4거리의 일부 좌회전 규제, 문화회관길 보차도식 주차장(개구리주차장) 폐쇄, 붉은고개 4거리, 올림픽공원4거리의 일부 좌회전 규제 등도 실시한다.

문의 _ 시 교통기획과 440-3864

남동공단 주차난 적극 해소



우리시는 남동공단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자 공영주차장과 노상 주차장을 설치키로 했다. 내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해 상반기

중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하반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까지 3억8천500만원을 들여 남동공단내 총연장 63.6km의 이면도로 변에 노상주차장(1만4천500대 주차)을 설치할 방침이다.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노상주차장에는 공단입주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주차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문의 _ 시 교통관리과 440-3903

학교 공원화 사업 착공식



인천기계공고 공원화 사업 착공식이 지난달 17일 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학교 담장 116m를 허물고 그 자리에 녹색 휴게공간이 마련된다. 이번 공원화사업에 따라 허물어진 담장자리엔 대왕참나무 외 15종 196주, 회양목 외 13종 7,595주의 나무가 식재되며 야생화 등 지피 식물이 심어진다. 이날 안상수 시장은 “학교에 나무를 심고 우리 고유 야생초화를 심는 일은 미래를 향한 희망과 확실한 투자”라며 “향후 학교 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_ 시 녹지조경과 440-3672

남북관계 물꼬 텃다 안상수 시장 단체장으로 첫 공식 訪北



안상수 시장을 비롯해 우리시 각계 인사 40여명이 지난 달 30일부터 2박3일의 일정으로 북한의 평양을 공식 방문했다. 그동안 부산·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비공식으로 북한을 찾아가는 예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북한의 공식 초청을 받아 방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30일 오전 9시 50분 북한 민항기를 이용해 인천 국제공항을 출발한 인천시 일행은 평양에 도착해 오는 9월 열리는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출전할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의 규모 등을 논의했다. 이 대회에 북한선수단 참가는 이미 확정됐고 응원단 파견도 긍정 검토 중이다. 대회 기간 중에는 인천에서 북한 꽃 전시회도 동시에 열기로 했다.

또한 강화와 황해도 개풍군 고도리를 연결하는 길이 1.4km의 연륙교 건설도 제안했다.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을 인천항으로 끌어들이는 뒤 세계 각지로 수출하자는 취지에서다. 향후 인천-개성-남포를 연결하는 ‘골드피스트라이앵글’을 구축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이 사업계획은 이미 현대아산 측을 통해 북한에 전달된 상태다. 인천이 2014년 아시안게임 국내유치도시로 확정됨에 따라 북한 측에 아시안게임 공동개최 또한 제안했다. 이밖에 민족 화해와 단합,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교류협력사업, 남포시와의 경제·문화·체육 교류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협의했다.

이번 방북을 위해 남과 북측 실무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베이징과 선양, 개성 등을 오가며 8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극적으로 방북을 성사시켰다. 우리시는 이번 방북에서 남북 경험, 아시안게임 공동 개최 제안 등을 논의함으로써 앞으로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위 사진은 지난해 5월 인천항에서 북한 용천에 재해구조물자를 보내는 안 시장과 시민들의 모습)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시민과 함께 합니다



지난 5월 16일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9월 1일~4일)의 성공 개최를 위한 범시민협의회 발대식과 홍보스티커 부착 시범행사가 있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 행사는 아시아육상조직위원회 위원장인 안상수 시장과 조직위원회 위원, 시 문화관광국장, 사회단체장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위촉장 전달, 위원장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범시민협의회는 오는 7·8월 2회에 걸쳐 회의를 가진 뒤 ‘시민 한명, 1 입장권 구입운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발대식에 이어 시청 현관 앞에서 안상수 시장과 박승숙 시의회 의장, 시 택시운송사업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시민 홍보스티커 부착 행사도 열렸다.

인천대 국립화 한 목소리



인천대를 국립화하자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 가는 가운데 그 첫 결실인 인천시민 100만인 서명운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우

리시와 인천대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인천대학교국립대전환범시민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부터 24일까지 17일간 진행된 서명운동 결과 목표를 초과한 총 130만명이 서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지난 5월 6일 오전 9시 인천대 국립화 전환을 위한 130만인 서명부 인수인계식을 시청앞에서 갖고 1톤트럭 두 대 분량의 서명부를 안상수 시장에게 전달했다. 우리시는 시민의 공감대와 집약된 의지를 교육인적자원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문의 _ 시 정책기획관실 440-2173

1사1촌 자매결연 운동 결실

우리시와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1사1촌 자매결연 운동’ 결연식이 지난달 10일 강화군 내가면 향청1리 용두레 마을에서 있었다. 이날 부평구에 소재한 현대GS 박정기 대표이사과 농촌진흥청 지정 전통테마 마을인 용두레마을 배광혁 마을대표는 자매결연 증서를 교환하고 향후 지속적인 상호발전 관계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농촌사랑 운동인 ‘1사1촌 자매결

연 운동’은 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교류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문의 _ 시 기업지원과 440-2874

제1회 인천디자인포럼 개최



인천디자인전문회사 협회(IDCA·회장 강정란·아르필 대표)는 인천의 디자인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방향 등을 제시할 지역 디자인

분야의 정기 포럼을 지난달 10일 오후 3시 송도테크노파크 갯벌타워 국제회의장에서 열었다.

‘핵심역량으로서의 디자인과 인천 디자인산업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열린 ‘제1회 IDCA 인천 디자인 포럼’에서는 김철호 한국디자인진흥원장이 ‘디자인 산업의 중요성’, 황의식 인천시 경제통상국장이 ‘인천 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김성희 인천전문대 교수가 ‘인천 디자인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성숙 인천시의회 의원, 박희면 한국디자인진흥원 본부장, 지역 디자인 전문 회사 대표는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협회는 앞으로 연 중 2회는 외부 포럼, 2회는 회원사 사이의 내부 세미나 형태로 포럼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예정된 나머지 행사의 주제는 2회 ‘인천 디자인의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 3회 ‘디자인의 디지털화 지적 재산권’, 4회 ‘글로벌 인천을 위한 국제적 디자인 문화 역량 확산’ 등이다.

문의 _ 시 경제정책과 440-2821

학교폭력예방 자원봉사자 본격 활동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내순찰과 상담활동을 펼칠 상담 자원봉사자들이 본격 활동에 나섰다. 사회단체 회원, 학부모, 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 자원봉사자는 62개 중학교에 115명, 35개 고등학교에 67명 등 학교당 1~2명씩 배치돼 주 3회, 25시간씩 학교폭력, 학업중단 학생 예방을 위한 교내 순찰과 상담활동을 하게 된다. 교육청은 이들 자원봉사자가 배치된 학교에 대해 사전연수를 실시하는 등 봉사자들의 교내 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고 상담장소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입체적인 폭력예방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교, 지역교육청, 교육과학연구원,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상담체계를 구축했다.

계양산 생태통로 추진



계양산 징맷이고개에 길이 100m의 터널형 생태통로가 조성될 전망이다. 우리시는 오는 2006년 초까지 120억 원을 투입해 계양구 계

산동과 서구 공촌동 일대 징맷이고개에 야생 동물을 위한 길이 100m, 폭 100~150m의 터널형 생태통로(녹지축) 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생태통로 및 녹지축 복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4월 인천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의뢰, 올 11월 타당성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현재 계양산에는 곤충류 36종과 조류 61종, 야생식물 77과 194속 등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의 _ 시 환경보전과 440-3530

중소기업 애로사항 현장에서 듣는다

우리시가 경제통상국 소속 팀장 15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현장체험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한국후지제록스를 비롯한 10개 업체에서 공무원들이 3일간 직접 현장 근무를 하면서 역지사지(易地思之) 입장에서 중소기업 규제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체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우리시는 운영결과 효과가 있을 경우 비제조업 분야까지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_ 시 경제정책과 440-2791

시민인권보호단 운영

인천지방경찰청은 경찰의 인권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 인권 침해 여부를 감시하는 ‘시민 인권보호단’을 운영키로 했다. 변호사, 시민단체 회원, 교수, 종교인 등 11명으로 구성된 인천경찰청 시민인권보호단은 경찰서 유치장 실태 확인 및 유치인 의견 청취,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시위현장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또 인권 침해로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에 대해 직접 면담을 통해 질의를 할 수 있고 아동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시민 인권보호단은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발견할 경우 이를 경찰에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 경찰의 인권 의식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베트남 하이퐁시 조형물 제막

안상수 시장은 투자유치를 위한 홍콩, 싱가포르 방문 이후 지난 5월 13일 우리시의 자매도시 베트남 하이퐁시에 들러 하이퐁시 독립 50주년과 자매결연 8주년을 축하했다. 이날 인천과 하이퐁간 교류와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조형물 제막식이 하이퐁시 국제무역전시장내 공원에서 개최됐다. 이자리에는 청광쓰 하이퐁시장과 이주삼 시의회 의원 및 배재현 주베트남한국대사관 부대사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하이퐁 조형물은 오는 10월 인천시민의 날에 즈음하여 인천에 설치될 예정이다.

문의 _ 시 국제협력관실 440-2852

수돗물의 새 이름 ‘미추홀 참물’



우리시의 수돗물 이름이 새로 지어졌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공모를 거쳐 ‘미추홀 참물’이 새 이름으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다. 이번에 선정된 수돗물 이름 ‘미추홀 참물’은 업무표장 출원을 통해 사용가능 여부를 판정하여 인천 수돗물의 공식명칭으로 사용하게 되며, PET병 수돗물 및 각종 홍보행사 등에 활용하게 된다.

문의 _ 시 상수도사업본부 870-9225

| 인천지방경찰청 소식 |

삭막한 유치장, 밝고 환하게

삭막한 유치장이 밝고 환하게 바뀌었다. 부평경찰서가 지난 3월부터 자체 예산 1천만원을 투입해 유치장 내부를 밝은 색으로 칠하는 한편 물이 떨어지던 천장도 고치고 조명시설을 보강하는 등 칙칙했던 유치장 내부 분위기를 확 바꿨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유치인 물품 보관함도 교체했으며 여성 유치인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여경 1명을 상근 배치한 것도 눈에 띈다. 지난 82년 준공된 부평서는 55평 규모의 유치장이 너무 좁고 낙후되어 환경개선 작업이 요구됐은 곳이다.



청도시 대표단 인천 방문

우리시와 교류중인 중국 청도시 위충(於冲) 부시장 등 400명의 방문단이 지난달 17일 우리시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환영식 이후 송도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송도테크노파크 원장과 청도전문가협회 소속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양도 설명 및 상담 시간을 가졌다.

문의 _ 시 국제협력관실 440-2832

위기가정 긴급 지원대책 마련

우리시가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을 돌보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지원과 가족해체 예방과 사회통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5억2천7백만원의 복권기금을 마련, 생계비 1회 60만원,

또는 의료비 200만원을 지원하고 직권보호 활성화, 군·구별 위기가정 SOS상담소 24시간 운영 등 대책을 세워 놓고 있다.

문의 _ 시 가정청소년과 440-3942

인천광역시자활교육센터 개소

인천광역시자활교육센터가 지난달 10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인천광역시자활교육센터는 남동구 구월동 1134번지(두루넷빌딩3층)에 120여평 규모로 마련되었으며 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전산, 자활매니저, 창업교육, 알코올예방교육, 사업단별 직무교육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참여자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_ 시 사회복지봉사과 440-2922

의 정 소 식

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위촉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박승숙)는 지난 5월 4일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승숙 의장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박창규·김덕희·홍인식 의원 등 10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사말을 통해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성심 성의껏 검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박창규 인천광역시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출했으며, 200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 일정을 5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으로 확정했다.

▶결산검사위원 명단

－ 시 의 원(3명) : 박창규·김덕희·홍인식 의원

－ 일반위원(7명) : 문승석·장만식·김동기·심강수 회계사, 이찬희·이영운 세무사, 김용철 건축사

대련시인민대표대회 전·현직 상무위원회 대표단 시의회 방문

박승숙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지난 5월 10일 의장실에서 변국승 전(前)주임을 단장으로 한 중화인민공화국 대련시인민대표대회 전·현직 상무위원회 대표단 일행을 맞이했다. 이 자리에서 박승숙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련시의회와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994년 우호 교류 협정을 맺은 이후 상호 교류 방문을 통해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왔으며, 우리시는 그동안 구축해온 한·중 양국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중국의 경제와 사회, 그리고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4월 한중문화관을 개관했다.”며 “오늘 만남을 계기로 대련시의회와 인천광역시의회가 모든 분야에서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련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단 일행은 5월 10일부터 3일간 인천을 머물며 경제자유구역청, 인천일보사, 대우자동차, 차이나타운 등을 둘러보았다.

자료제공 _ 시의회 공보팀 (440-6054)

중구 도·농간 농사체험 운동 전개

중구는 농촌을 체험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도·농간 농사체험 운동을 전개한다. 영종도 중산동 1661번지 김성훈씨 등 30여 농가와 연계해 농사체험장을 마련하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부녀회,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사를 직접 체험케하고 있다. 참가자는 수확된 농산물을 20~3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모내기, 고추심기, 풀메기, 포도숙기, 고구마캐기, 배수확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용은 없다.

문의 _ 중구청 760-7114

동구 ‘푸른 마을 가꾸기’ 수목자재 지원

동구는 ‘3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푸른 마을 가꾸기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동부아파트, 미릉아파트, 만석비치타운, 화도진그린빌, 새마을동구지회에 관목류 2천175본, 초화류 980본, 비료 355포를 지원했다. 앞으로 구는 ‘3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통한 푸른 마을 가꾸기 사업에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_ 동구청 761-0151

남구 중소기업 제품 판매 전시관 운영

남구청은 인천대 창업보육센터와 가르푸 인하점 2층에 ‘남구 중소기업 제품 판매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남구 중소기업 제품 판매 전시관에는 인천대 학교기업인 클린에어나노테크를 비롯해 (주)엔투앤의 식용금, (주)클레슨의 초음파 세정기, (주)엘림코퍼레이션의 스노보드 등 총 29개 업체 52개 품목이 전시되어 있다.

문의 _ 남구청 887-1011

연수구 치매노인보호센터 ‘은빛사랑방’ 개소

연수구 인천적십자병원에 주간 치매노인보호센터 ‘은빛사랑방’이 개소했다. 센터에는 모두 9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월~금요일까지 주 5일, 하루 8시간씩 치매노인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 건강검진, 재활치료, 적응훈련 등 신체적 재활훈련과 사회적응훈련, 영화감상 등 정신적, 사회적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센터는 3개월마다 입소 신청을 받는다.

문의 _ 연수구청 817-1011

남동구 저소득층 자녀 암 치료비 지원

남동구보건소는 자녀의 암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층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 보건소는 가구별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가정의 18세 미만 소아 및 아동 암환자를 대상으로 백혈병은 1인당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기타 암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문의 _ 남동구보건소 453-2782

부평구 라오스, 몽골과 각각 우호협약 체결

부평구는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라오스와 잠재가치가 풍부한 몽골에 대해 각각 우호협약을 체결했다. 박윤배 구청장을 비롯한 경제교류추진단을 지난달 5일부터 12일까지 7박8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과 라오스, 몽골을 방문, 관내업체 격려에 이어 경제 협력을 위한 우호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문의 _ 부평구청 527-5911

계양구 터미널 예정부지 꽃밭조성

계양구가 터미널 예정부지인 용종동 207-1번지 유희 나대지 일대에 꽃밭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4천여 평에 걸쳐 일년생 초화를 식재하고, 300여 평에 우리꽃을 식재할 예정이다. 기타 산책로변 600m는 보리밭길과 산책로 등으로 조성한다.

문의 _ 계양구청 551-5701

서구 5개 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 예정

서구청과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절도 등의 범죄가 늘어날 것에 대비, Net-Work 유선방식인 방범용 CCTV를 범죄 다발 지역에 한해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CCTV는 가정동 가정공원과 콜롬비아공원을 비롯해 거북시장4거리와 석남4거리, 검단4거리 등 5개 지역에 모두 10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문의 _ 서구청 562-5301

강화군 내고장 알기 순회교육

강화군은 관내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강화의 역사와 문화의 이해를 돕고 ‘역사의 고장’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강화역사 깊이 알기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순회교육은 지난달 16~17일까지 갑룡초교와 조산초교를 방문해 4학년 학생 160여 명을 대상으로 강화고인돌과 마니산의 상징성과 고려궁지의 향몽정신, 갑곶돈대, 광성보, 덕진진, 초지진 등 근대물결속에서 강화의 역사성을 알렸다.

문의 _ 강화군청 934-2183

웅진군 일하는 방식 개선통해 행정혁신

웅진군은 행정혁신 구현을 위해 행정능률, 사무혁신, 일하는 방식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위주 행정 구현을 위해 제도개선 분야 6개 과제, 일하는 방식 개선 9개 분야, 고객만족도 제고 7개 과제, 정보공유 3개 과제 등 4개 분야 25과제를 선정, 실천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평가결과 시책추진 우수부서 및 개인에게 인센티브 부여와 같은 보상을 할 계획이다.

문의 _ 웅진군청 880-2114

전국 은행장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우리시가 전국 은행장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5월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신동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을 비롯하여 조흥, 제일, 우리, 외환, 신한, 한국시티, 하나, 국민 등 시중은행장과 기업, 산업, 농업중앙회 등 특수은행장을 초청, 우리시 경제자유구역 개발 전략 및 도심재상사업 등 Buy Incheon 프로젝트를 집중 홍보했다. 이날 투자설명회에서는 Buy Incheon 프로젝트와 경제자유구역 개발 현황에 대한 세부설명이 이뤄졌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주)GS건설 인천경제자유구역 방문

(주)GS건설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각 분야별 책임자 10여명의 투자사업단이 Buy Incheon 프로젝트 투자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시를 방문했다. 지난 4월 2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한 이들은 운북 복합레저단지 개발,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 가정오거리 뉴타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우리시는 투자사업 예정지에 대한 순회투어 프로그램을 개발 인천을 방문하는 투자사업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18개국 주한 공관 대사 경제자유구역청 방문



지난 4월 22일 18개국 주한 공관 대사를 비롯해 임한택 외교부 국제기구심의관, 조정문 정통부 KADO 해외협력팀장 등 외교부 관계자 등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청 갯벌타워 2층 국제회의장에서 경제자유구역과 우리시의 발전방향에 대해 소개받았다.

새로운 컨셉, '비전 21' 신홍보관

새롭게 선보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신홍보관이 다양한 시설과 내용으로 방문객을 맞을 준비에 분주하다. 기존 송도 홍보관에 이어 '인천경제자유구역 비전 21'(IFEZ VISION21)로 명명된 이 홍보관은 송도국제도시 갯벌타워 2층에 동지를 틀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비전 21' 신홍보관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서고 기존 홍보관과의 이원화, 차별화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된다. 이 곳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전체 모형 전시물, 전망대, 정보검색기, 홍보패널 등을 갖추고 있다. '비전 21'은 실질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예약제로 운영되며 기존 홍보관은 올해 안에 리모델링을 통해 일반인과 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정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 _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114

국가와 인천의 Win Win 게임



글 _ 김복기 (시 정책기획관실 교육지원담당)



'88%의 절대다수 인천시민, 시립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에 찬성' 지난 3월 인천시민 1천4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인천대 국립대 전환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지난 4월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한지 불과 17일 만에 130만 명의 인천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는 그동안의 100만 인 서명운동이 2개월 정도의 기간이 경과해야 목표에 달성하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시사하는바가 크다.

우리 인천은 서울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수도권 규제에 묶여 대학증설이 어려워 고교 졸업생의 7.4%만이 인천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고 이는 인재유출 및 애항심 결여로 이어져 지역정체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아울러 인천의 고등교육 환경에 만족하는 시민은 고작 9.8%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교육의 낙후성을 이유로 인천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될 정도로 인천의 교육여건은 전국 최하위권이다. 인구 규모로는 서울, 부산에 이어 광역시중 세번 째이지만 고등교육 혜택에 있어선 심각한 차별을 받아온 것이다.

인천에 국립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국가는 인천에 국립대를 신설해 타 지역과 평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재정이나 여러 가지 형편상 국립대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하여 인천은 국립대 신설을 고집하지 않고 차선책으로 인천대를 국립대로 전환기로 한 것이다.

인천대가 국립대로 전환되면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350만 인천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시에서 인천대에 지원하던 연간 200억원의 운영자금을 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또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은 국가의 미래전략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성공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지금처럼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은 인근 명문대학인 캘리포니아대나 스탠포드대 등에서 우수한 인재가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송도 등의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우수기업이나 유명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국립대학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인천대가 국립대로 되면 경제자유구역내의 유일한 국립대학이자 국제비즈니스 리더를 키우는 인재양성 기관으로, 그리고 국제적 산학연 네트워크 중심지로 IT, BT, NT를 선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곧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은 국가도 인천도 모두 Win-Win하게 되는 것이다.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인천순시에서 '인천에 국립대가 없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국립대가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 정책을 관장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국가재정부담 및 국립대학 구조개혁과 상충된다는 등의 이유로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단편적인 시각이다. 국립대 신설에는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은 2008년에 조성될 인천대 송도캠퍼스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국립대 건립 예산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향후 국립대 운영에 따른 지원이 필요할 것인데 이는 현재 국립대 구조개혁결과 남은 예산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대학구조개혁은 교육여건이 부실한 대학을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는 꼭 필요한 국립대 수요가 있는 지역에 경쟁력 있고 튼실한 대학을 설치·육성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결코 인천대 국립대 전환과 대학구조개혁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현 정부의 정책모토는 '지역균형발전'이다. 지방의 균형발전은 구호로만 이뤄질 수 없고 실질적인 정부의 실천과 지원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국가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실천적인 과제를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으로 보여줄진심으로 바란다.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 투자유치 성공으로 본격 추진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이 순조로운 투자유치 성공으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포스코건설(사장 한수양)과 미국 게일사의 합작법인인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이하 NSC: New Songdo City Development, LLC)는 지난달 2일 네덜란드 ABN암로은행과 국민은행, 우리은행으로부터 국제업무단지개발 투자자금 1조 5천억원을 조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이낸싱은 3번째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을 비롯해 세계적 투자은행인 ABN암로가 주관사 은행으로 나서 자본조달을 책임지는 형태이다. 이들은 5월말까지 신디케이션 방식을 통해 국내외 20~30여 개의 은행을 참여시키고 6월말에는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달되는 1조 5천억원은 중앙공원과 컨벤션센터, 도로 및 수로, 국제학교 및 병원 등 공공인프라 구축 등에 투입될 예정이어서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개발은 포스코건설과 미국의 부동산개발 전문회사인 게일사가 동북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 건설을 목표로 송도지역 매립지 167만평에 2014년까지 200억불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한편, 이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은 2014년까지 약 20조여원을 투자유치할 계획인데 이미 1차 2003년 10월에 9천억원, 2차 2004년 6월에 1조 8천억원을 유치한 바 있다.

제공 _ 노컷뉴스 (www.cbs.co.kr)

아아, 어찌 그 날을 잊을 수 있으랴

6·25전쟁이 일어난 지 55년, 속절없이 반 백 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 6·25전쟁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6·25전쟁은 저마다의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 있을 뿐, 역사(歷史)로서는 미완의 장(章)이다. 피아(彼我) 간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탓이기는 하지만, 그냥 그렇게 묻어두기에는 너무나 뼈아픈 교훈을 준 민족 최악의 역사이며, 두 번 다시 그 같은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를 밝혀 후세에 전하는 것은 하나의 시대적 사명인 것이다. 그 출발점의 하나로 여기에 간략하나마 일부 기록과 증언을 토대로 당시 정황을 소개한다.



상륙작전이 끝나자 청관(차이나타운) 일대에 몸을 숨겼던 시민들이 오인 사격을 염려해 손을 든 채 국군을 맞이하고 있다. 대불 호텔 쪽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부서진 장독들. 아낙네들이 애지중지하던 장독도 총탄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6·25전쟁은 이렇게 사람도 물자도 초토화시켰다. 이 사진은 작가 임응식 선생이 중구 율목동에서 1950년 9월 24일 촬영한 것이다.

남으로 남으로 피난 행렬

1950년 6월 25일 아침, 라디오에서는 북한의 남침 사실과 함께 정부가 수도 서울을 사수할 것이라는 방송을 하루 종일 되풀이하고 있었다. 인천 시민들은 이 뉴스를 반신반의하면서 불안과 초조 속에 무엇을 어찌해야 할 줄 몰라 우왕좌왕할 뿐이었다.

26일, 용진·연백 지역에서 피난해 온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시청 직원들은 시청 공터(현 중구청 자리)에 솥을 걸고 주먹밥을 만들어 인천공회당과 각 학교에 설치한 임시 수용소에 나눠주었다. 그러나 시장이 먼저 인천을 빠져나가 시정(市政)이 공백 상태임을 알게 된 시민들과 시청 직원들은 망연자실해 하며 서둘러 피난을 준비했다.

28일,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다. 다급해진 인천의 모든 관공서와 군경(軍警)은 일거에 철수를 단행했다. 일부 좌익 인사들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 차량을 징발해 타고 시내 곳곳에서 적기(赤旗)를 흔들며 기세등등하게 시위를 벌였다.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한 시민들은 두려움 속에 이를 냉연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은 시청을 비롯한 모든 관공서를 점거했다.

30일 오후 4시, 기관총과 소총 쏘는 소리가 정적에 싸인 시가지지를 뒤흔들었다. 수원으로 후퇴했던 동인천경찰서 소속 전투 병력 수백 명이 인천우체국 부근에 재집결해 시청 쪽을 향해 일제히 사격을 가하고 있었다. ‘해방군 환영회’를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은 혼비백산해 달아났으나, 총탄에 쓰러진 자가 많았다. 시청 정문 앞에는 10여 구의 시체와 부상자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다. 이날 숨진 이들이 수백여 명에 달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7월 4일 0시,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이 김포, 부평을 거쳐 인천에 침입했다. 시민들은 인천까지 빼앗겼다는 절망감과 함께 수많은 피난민들이 계산동, 부평동, 장수동을 거쳐 남하하는 것을 보고 경악하면서 서둘러 피난길에 올랐다. 시내 전역은 피난민 사태를 이루었다. 일부는 부둣가에 나가 배편을 구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남부 여대하여 신작로를 따라 남으로, 남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소래 방면 도로는 사나흘 간 사람과 차가 밀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공산 치하, 숨죽인 시민들

그러나 피난 가지 못한 시민들은 공산 치하에서 도생(圖生)할 수밖에 없었다. 인천상륙작전 때까지 시민들은 숨을 죽이며 살았다. 시청에는 인천시 인민위원회가, 각 동(洞)에는 동 인민위원회가 설치됐다. 경찰서는 보안서(保安署)로 개칭되었고, 서원들은 무기를 휴대한 채 시내를 순찰하며 주민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었다.

매일같이 각 동 선전실에서는 수시로 종(鐘)을 쳐 주민을 집합시켰다. 선전 요원들은 노력 동원, 의용군 입대, 양곡 수집 등을 강요했다. 청장년들은 의용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인근 산속이나 은신처에서 숨어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원통이 고개 근처에서 민간인들을 사살했다는 소문이 전해지면 서 민심은 더욱 흉흉해졌다.

9월에 접어들어 아군은 인천상륙작전의 전초전으로 인천 지역에 산발적인 폭격을 가했다. 시내 관공서를 점거하고 있던 북한군은 혼비백산해 낮에는 방공호에 몸을 숨기고, 밤에 나와 행동하였다. 나중에는 그것도 불안했던지 변두리 민가에 잠복하는 등 전전공공하다가 급기야 인천상륙작전을 맞았다.

인천상륙작전은 맥아더 사령관의 지시 아래 연합군 통합전략기획단에 의해 구상됐다. 9월 12일 2백61척의 대 수송 선단이 부산항을 출발, 9월 15일 월미도를 장악한 데 이어 곧바로 만석동, 옥련동 일대에 일제히 상륙했다. 당시 일부 시민들은 단파방송을 통해 상륙작전이 개시된다는 것을 알고 시 외곽으로 빠져 나갔으나 도심지에 남아 있던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은 먼발치에서 상륙작전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다.

11시경, ‘그라만’ 전투기 편대들이 새까맣게 하늘을 메우며 시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던 북한군 시설에 기관포를 퍼붓고, 12시 정각, 함포 사격이 시작되면서 중심가 일부가 불타올랐다. 민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함포 사격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심경은 참담하였다. 내 고장, 내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폐허로 변해가는 모습을 차마 눈을 뜨고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의용군 가두 선전 시위.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한 인천의 청년·학생들은 ‘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에 내몰렸다. 그들은 의용군 징집을 선전하기 위해 스탈린과 김일성 초상을 앞세우고 대대적인 가두 행진을 벌였다.



상륙작전 당일 오후의 레드 비치. 상륙 후 병참 지원을 위한 트럭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앞의 섬은 월미도.



시가지를 수색하고 있는 유엔군. 중구 신포동 거리를 수색하고 있는 유엔군을 전쟁의 영문도 모를 한 어린아이가 바라보고 있다. 60년대 초까지 영업을 했던 유명한 커피점 ‘유토피아’의 간판이 보인다.

만세, 인천상륙작전

이에 앞서 북한군은 지역 인사 수백 명을 송학동 인천경찰서와 문학동 인천소년형무소에 수감하고 있었는데 인천경찰서 유치장을 관리감독하고 있던 북한군 제10방어사단 소속 정치보위부 부원 박기분 등은 9월 15일 연합군이 인천에 상륙하기 직전 수감자 102명에 대해 무차별 사격을 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중 53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28명은 중경상, 21명은 살아서 도망쳐 나왔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인천소년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인사들이 천재일우로 목숨을 건졌다는 점이다. 연합군의 함포 사격으로 전화선이 절단되는 바람에 인천소년형무소를 관리하던 북한군이 상부 명령을 받지 못한 나머지 수감자 처리에 단안을 내리지 못한 채 패주했던 것이다. 15일 밤, 북한군 주력 부대는 인천시를 빠져 나가 부평과 소사(현 부천 지역)에 새로운 저지선을 구축하고 저항했다.

9월 15일 저녁, 북한군이 어느 틈엔가 사라졌다. 거리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시가지가 불타올라 저녁 하늘을 온통 별장게 물들였다. 여기저기서 조명탄이 터지고, 기총 소사 소리가 간간히 들리는 가운데 시민들은 동인천경찰서 옆 간장 공장 창고를 열어 밤새도록 밀과 콩 등 양식을 실어 나르느라 아우성이었다.

9월 16일 아침, 시민들은 비장했던 태극기를 꺼내 들고 우리 해병대를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곳곳에 파 놓았던 방공호에서는 패잔병들이 속속 끌려나왔고, 자유공원 등 시내 곳곳에는 북한군 전사자의 시신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9월 17일, 학생들에게는 등교 통지서가 배달되었고, 시내는 평온을 찾은 듯 했으나 주안, 부평, 김포 등지를 거쳐 서울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의 격렬한 저항으로 수많은 병사들이 전사했다.

그렇게, 잔인했던 1950년 여름과 가을은 울분과 통탄과 비참의 울음 속을 지나고 있었다. 전쟁은 그 후 3년여 간 계속되었다. 특히 중국군(中國軍)의 명분 없는 개입으로 온 국민은 눈보라 속에 1·4후퇴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우리는 통일의 기회를 잃은 채 지금까지 분단의 쓰라린 고통을 겪어내고 살고 있는 것이다.

‘어찌 우리 이 날을 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 땅의 2세들은 6·25 전쟁은 물론 인천의 전쟁사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기성세대들은 부정확한 지식과 시각적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전사(戰史) 대부분이 승전 기념서 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우리 당대사(當代史)를 무관심 속에 덮어두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화해와 협력’을 말하며 민족의 미래를 설계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역사의식이 새삼 요구되는 오늘날인 것이다.

글 · 사진제공 _ 조우성(시인 / 인천시 시사편찬위원)



인천 중군 화첩. 6·25전쟁 당시 정훈국 미술대 소속 조병덕 화백이 그린 인천 부근 스케치. 북한군의 부서진 탱크 뒤로 연기가 솟아오르고 비행기 편대가 지나고 있다. 인천상륙작전 때 처절했다는 이 근처에서는 “아직도 피비린내가 코를 찌르는 듯싶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6·25전쟁 50주년을 맞아 미국에서 발행해 배포한 승전 기념 포스터. 인천상륙작전 부분만 발췌했다.

“아이고 허리아 ~”

글 _ 백승정 (한국병원 부원장)

요통은 일생동안 전 인구의 80%정도가 한번 이상은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병이다. 이렇게 요통이 흔한 이유는 인간이 네발로 기어다니는 동물이 아니고 두발로 걸어다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최근에는 컴퓨터 등을 많이 이용하면서 사무실 등에서 주로 앉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허리에 가중되는 무게가 더욱 심해졌을 뿐 아니라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노인들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요통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55세 이하 직장인 중 직장을 결근하는 원인이 감기 다음으로 흔한 질병이기도 한 요통의 평생 유병률은 60~90% 정도이지만 더 큰 문제점은 한창 일할 나이인 35~55세 사이에 유병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며 노인들이나 직장인, 가정주부 뿐 아니라 10대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병원을 찾는 요통환자들 가운데 잘못된 자세와 운동부족으로 척추와 골반이 비뚤어지고 인대가 한쪽으로 늘어난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술이 필요한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 분리증 등의 진단을 받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 분이다.

요통 치료는 수술보다는 안정과 자세교정, 운동 등을 통한 자연 치유가 기본이며 무거운 것을 들다 빼앗겼거나 교통사고 등 외부적인 충격에서 오는 급성 요통의 경우 무엇보다 가장 편한 자세로 누워 있는 것이 좋다.

급성 요통은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아도 90% 정도는 2개월 이내에 자연적으로 호전되지만 만성 통증은 6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성 요통인 경우 자세 교정과 허리근육 보강운동, 물리치료 등을 병행하며 통증이 주로 허리 근육의 피로와 긴장 이완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근육강화 운동을 통해 통증을 줄이거나 해소할 수 있다.

수영과 걷기가 허리에 좋은 운동으로, 수영은 근육의 유연성을 길러주고, 하루에 30분씩 2회 정도 빠르게 걷는 것이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좋다. 자전거 타기나 윗몸 일으키기 등도 허리 강화 운동에 도움이 된다.

이밖에 최근 이러한 환자들에게 IMS(신경자극요법)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시술 시간이 짧고 치료 횟수도 1주일에 1회 정도로 중증 환자의 경우 3~5회 정도만 치료해도 아픈 부위에 통증이 없어진다.

만성요통, 혹은 디스크 환자로서 일반적인 물리치료로 호전이 더딘 경우 IMS 요법을 병행하면 50~80%는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문의 _ 한국병원 428-9411



인천은 국제도시이다. 국제공항과 항구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지정으로 하루가 다르게 외국인들의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다. ‘음식’은 지역의 문화이자 역사이다. 우리시는 외국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맛 좋고 친절하며 깨끗한 음식점 90군데를 선정했다. 메뉴별로 매달 4군데씩 시리즈로 소개한다. (자료제공 _ 시 보건위생과, 아이디어)

한식 현대회관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57-1 | TEL : 764-4266

스페셜메뉴 : 고기류
영 업 시 간 : 오전 10시~오후 10시
찾 아 가 기 : 일반버스 16번, 17번, 24번 이용 후 송림동로터리 하차

양식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구월점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6-1 | TEL : 431-1761

스페셜메뉴 : 스테이크
영 업 시 간 : 오전 11시~오후 11시
찾 아 가 기 : 인천지하철 이용후 문화예술회관역 하차

죽식 태림봉 | 인천광역시 중구 선린동 6 | TEL : 763-1688

스페셜메뉴 : 누룽지탕
영 업 시 간 : 오전 11시~오후 10시
찾 아 가 기 : 경인전철 인천역하차 차이나타운내

양식 동원참치 다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814-9 | TEL : 834-3355

스페셜메뉴 : 참치회, 전복
영 업 시 간 : 오전 10시~오후 10시
찾 아 가 기 : 일반버스 6번 이용 후 송도호텔 하차

노래로 스트레스 날리니 '오, 즐거운 인생'

우울증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요즘.

특히나 집에서 살림만 하는 주부들은 스트레스를 쉽게 풀지 못해 우울증의 노예가 되기 십상이다.

이럴 때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두 말 않고 찾아 나설 일이다.

바로 주부노래교실이다.

노래교실은 주부들이 맘껏 소리를 지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요즘 유행하는 노래를 배우면서 아이들과의 세대차도 극복할 수 있다.



주부교실 연수구지회 노래교실

화창한 오월의 어느 날. 신록이 우거진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변화한 연수구의 거리. 한 건물에서 신디사이저의 높은 소리가 지나는 이들의 귓가를 울린다.

소리의 발원지는 한 뷔페 건물. 주말이면 어른들 생신모임이다, 아이들 돌잔치다 해서 삼삼오오 둘러앉아 가져온 음식을 맛나게 먹을 뷔페 테이블이 오늘은 아줌마들의 팔꿈치 세례를 받고 있다. 열두 개의 테이블에 너댓명씩 둘러앉아 오션지에 콩나물이 잔뜩 그려진 악보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아줌마들은 무슨 수험생 같다. 앞에서는 목청 좋은 강사가 선창을 하며 이들과 신명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 연수구지회의 '노래 교실'의 풍경이다.

주부교실 연수구지회의 노래교실은 올해로 8회째를 맞고 있다. 앞에서 주부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면서 음반을 취입하기도 한 이영심씨. 그녀의 말 한마디에 테이블에 앉은 아줌마들은 말 잘 듣는 학생이 되어 지도하는 대로 잘 따른다.

오늘 부르고 배울 노래는 '나무와 새'. 안타까운 노래 가사를 표현하듯 아줌마들의 표정도 사뭇 진지해 진다. "그 부분에서는 뿌리듯이 불러요". 뿌리듯이? 무슨 뜻일까? 하지만 배우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모양이다. 고개를 끄덕이며 또 한차례 노래를 불러댄다. 이 곳에 모인 사람들은 나이도 다양하다. 주로 3·40대 주부들이지만 50대, 60대의 나이 지긋한 분들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가라앉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이번엔 밝고 경쾌한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노래가 신디사이저 반주로 흘러나오자 강사 이영심씨는 흥겨운 몸짓을 유도한다. 모두들 일어나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해보라는 것. 처음엔 주저하며 옆 사람을 흘깃거리던 수강생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음악에 몸을 맡기자 노래교실은 어느새 댄스교실로 바뀌어 있다.

주부교실 연수구 지회 부회장이자 노래교실의 회원인 박민주씨(45세·연수동)는 "노래를 부르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건 물론이고 즐거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하루가 즐거워지고 집에 가면 가족들에게도 더 잘하게 되죠."라고 노래교실의 효과에 대해 극찬한다. (016-273-5529)



남동구 건전가요 노래교실

남동구의 건전가요 노래교실은 여러 문화강좌 중 가장 수강생이 많은 인기 강좌다. 1년 내내 진행되는 노래교실이 열리는 구청 강당은 늘 300여명의 수강생들로 꽉 들어찬다. 지난 2003년 3월 주부들이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주부 노래교실'로 문을 열었을 때는 분기단위로 운영했다. 하지만 폭발적인 인기를 감당해 내기엔 역부족인 터라 지난해부터 1년 내내 운영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두 시간씩 진행되는 노래교실에는 20대 미혼 여성부터 70대 할머니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함께 하지만 세대차 따위는 노래 속에 녹아버린다. 부르는 노래도 다양한 연령층 감안해 포크송, 최신 가



요 등 다양하다. 오히려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은 신세대 노래를 배울 수 있어 좋으며 요즘 유행하는 노래에 더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백화점 문화센터 등에서도 노래교실 강사를 하고 있는 성희재 씨가 특유의 입담으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 가르친다.

1월 중순 개강에 앞서 520석 강당규모에 맞는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했지만 아직 좌석에 여유가 있어 굳이 참가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노래교실에 함께 할 수 있다. 수강료는 따로 없고 교

재를 구입할 경우에만 본인이 부담한다. (453-2364)

문화센터 & 문화회관

좀더 전문적인 노래강습을 원한다면 우리시 여러 회관이나 백화점 등 문화센터의 노래교실을 이용해 볼 만 하다. 문화센터는 보통 3개월 단위로 강의가 진행되는데 일주일에 한번 한 시간에서 두 시간 동안 즐거운 노래 속에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다.

특히 우리시 여성복지관에서는 기타 사회교육으로 파워노래교실을 연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3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강좌지만 수시로 접수해 함께 할 수 있다. 수강료는 한달에 만원. 다음 기수는 6월 14일에 모집해 7월부터 강좌가 시작된다.



매주 수요일 11시와 목요일 오후 1시 남구노인복지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노래교실엔 활기가 넘쳐난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리는 노래교실이라고 해서 '노인' 들만 계실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300여명의 회원 중에는 50대 아주머니로 보이는 이들이 꽤 자리잡고 있다. 노래를 부르면서 덩달아 나이와 세월을 잊는다는 어르신들이다.

요가나, 국선도 같은 조용한 운동을 통해서도 심신을 닦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겠지만 손쉽고 편하게 아무 곳에서나, 아무 준비 없이 스트레스를 날려 버릴 수 있는 노래를 통해 '즐거운 인생' 을 만끽해 보자.

글 _ 정경애 (happyjka@incheon.go.kr) / 사진 _ 김성환 (자유사진가 · koin1@incheon.go.kr)

문화센터 노래교실

기 관	강 좌 명	기 간	시 간	수 강 료	문 의
여성문화회관	송광호 노래교실	7월 5일~9월 26일	목요일 10:00~11:30	30,000원	511-3141~4
	정성을 노래교실	7월 5일~9월 26일	화요일 10:30~12:00	30,000원	
여성복지관	파워노래교실	7월 5일~9월 30일	수요일 10:00~12:00	30,000원	425-1362
	문혜원의 웰빙 노래교실	6월 1일~8월 17일	수요일 15:30~16:40	60,000원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윤세원 가요특급	6월 2일~8월 18일	목요일 11:10~12:20	60,000원	430-1234
	이미옥의 노래 스페셜	6월 2일~8월 18일	목요일 14:00~15:10	60,000원	
	이호성의 가요클리닉	6월 3일~8월 19일	금요일 19:00~20:00	70,000원	
	홍기창의 노래와 함께 하는 삶	6월 13일~8월 29일	월요일 15:50~17:00	60,000원	
롯데백화점 인천점	김순기의 파워충전노래교실	6월 2일~8월 29일	목요일 13:20~14:20	60,000원	450-3880
롯데백화점 부평점	노래에 깊은 사랑을 담자	6월 2일~8월 29일	목요일 13:40~14:40	60,000원	452-2086

Youthzine | '파인트리'와의 만남

약 60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있는 영어동아리 'PTC(Pine Tree Club)'를 만났다. 다소 늦은 듯한 기분으로 문을 두드리자 강의실에서는 warming-up이 한창 진행 중이다. warming-up이 끝나고 conversation-drill(회화 훈련)이 시작되자 학생들은 저마다 제시된 숙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조곤조곤 말하며 그 의미를 유추해내기 시작했다. 드디어 main-session이 시작되고, 모두는 토론을 위해 정해진 그룹으로 모였다. main-session에서는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이날의 주제는 'socialization of childcare(육아의 사회화)'였다. 몇 명의 자녀를 희망하는지, 한국의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부지원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또 얼마의 지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이렇듯 파인트리는 영어 능력 신장과 동시에 대학생들간의 다양한 교류를 목표로 한다. 심지어 미국 현지에서 PTC가 있다고 한다. 파인트리는 이미 영어 동아리 그 자체를 넘어 다양한 층과 집단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겉에서 본 파인트리는 하나의 작은 사회다. 아주 거대한 규모의 단체는 아니지만 그 안에는 엄연히 지켜야 할 규칙과 질서가 있고, 또 협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파인트리가 푸근한 집이라고 말한다. 선후배간의 단결과 가족처럼 끈끈하게 뭉쳐지는 서로간의 유대감은 파인트리의 큰 자랑이라고 할 수 있다.

드디어 손을 엇갈리게 해서 잡고 ending-song을 부르는 것으로 이날의 차례가 모두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간 자리에서 영어교육과 동아리 활동 및 학교생활에 관한 짧은 인터뷰를 했다.

참석자들에게 영어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평소 영어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소신있고 뚜렷하게 답해 주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영어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조기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이 붐을 이루고 있다. 어린이가 한국이라는 국가관이 형성되기 이전에 유학을 가게 되면, 자신과 나라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해지게 된다. 또한 한국의 영어교육이라는 것은 대체로 문법과 독해 위주이기 때문에 비록 조기유학을 다녀왔다 하더라도 내신 관리는 따로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만 여행을 목적으로 탐방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느끼는 것은 견문을 넓히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학창 시절엔 어떤 방법으로 영어공부를 했냐고 묻자 고개를 가웃하며 그 당시에는 영어학원이 열풍이어서 주로 학원을 다니면서 많은 공부를 했고, 수능시험을 위해 단어를 열심히 암기했다고 말했다. 또 일부는 문법을 위하여 토익을 공부하거나, 영어연극에도 참여했다며 그런 것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답했다.

Pine Tree Club(파인트리 클럽), '영어'라는 건전한 주제를 통하여 함께 생각하고, 스스로 점검하는 학문적 모임이자,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진 청년들의 뜨거운 교류의 장.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Evergreen이라는 뜻처럼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

글 _ 정진영(제5기 청소년웹진 MOO 학생기자, 연수여고 2)



'영어정복'으로 똥똥 뭉쳤다



처절하게 치열하게 내 땅 지키는 피의 요새

강화도 가는 길목, 서구 검암사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최소희(검암초 6학년)와 엄마 서두이(41) 씨를 만났다. 여드름이 봉긋이 솟아오른 사춘기 소녀 소희는 다른 교과보다 역사 공부가 훨씬 재미있다. 역사문제풀기, TV 시극보기, 문화재답사라면 절로 흥이 일어나는데. 조리개를 조여 근시 안경 밖을 바라본다. 순국선열들의 애국심을 느끼고 배우러 강화 길에 올랐다.

“강화는 ‘지붕 없는 역사관’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발 딛는 곳 마다 유적지와 전적지가 많은 곳입니다. 이곳 싸움터는 수많은 조상들이 나라를 위해 장렬히 싸우다 목숨을 잃은 곳입니다. 숙연한 마음으로 답사를 해야 합니다.” 초지대교를 지나 초지진으로 향한 일행은 매표소 앞에서 강화 역사를 설명해 줄 정정수(63) 문화유산 해설사를 만났다. 해설사는 성벽 옆의 노송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일본 군함에서 쏘아댄 포탄의 흔적이 한세기가 훨씬 지났음에도 제국주의의 침략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다. 그 상처 언저리에 흰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중과부적... 그들은 온몸으로 싸웠다

초지진은 길상면 초지리 624번지에 있다. 효종 7년(1656) 안산에서 이곳으로 옮겨진 것이다.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뒤 국방을 튼튼히 하는 차원에서 강화에 천험한 요새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강화도 해변에 8개의 진을 설치한 것도 이러한 정책의 일부분이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때는 물론, 운양호사건 때도 일본군과 맞서 줄기차게 싸운 곳이다. 신미양요가 일어난지 4년이 지난 1875년 일본군은 마실 물을 구한다는 핑계로 강화도에 군함 운양호를 들이대고 행패를 부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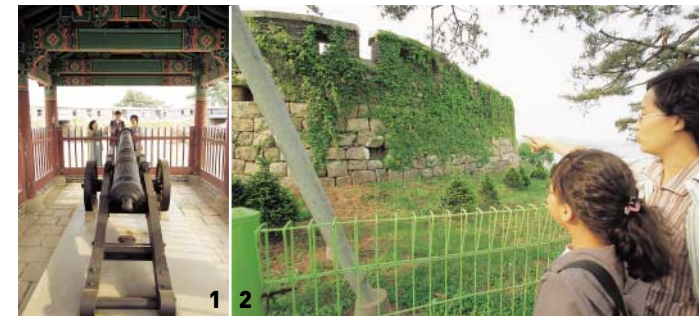
드디어 접전이 벌어졌지만 구경12cm에 사정거리 700m에도 못 미치는 대완구포(大碗口砲)가 우리의 주무기였고 일본군은 명중률과 사정거리가 우리와는 비교도 안되게 높은 함재포(艦載砲)를 적재하고 있었다. 사력을 다해 싸웠으나 우리는 35명의 전사자를 비롯해 수많은 부상자를 냈고, 일본측은 겨우 경상자 2명뿐인 일방적인 패배였다. 운양호와의 싸움에서 패한 조선은 1876년 강화도조약(병자수호조약)을 맺었다. 이로 인해 인천항, 원산항, 부산항을 잇따라 개항하게 됐고, 대원군의 쇄국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게 되었다.

“초지진 가운데 홍이포를 보세요. 하마터면 제자리를 못 찾을 뻔했습니다. 장병찬이라는 사람이 외교를 하기 위해 일본에 갔을 때 어느 집의 기둥으로 쓰여지는 것을 보았답니다. 우리나라 것이다 해서 어찌 보상했는지는 몰라도 결국 제자리로 가져오게 됐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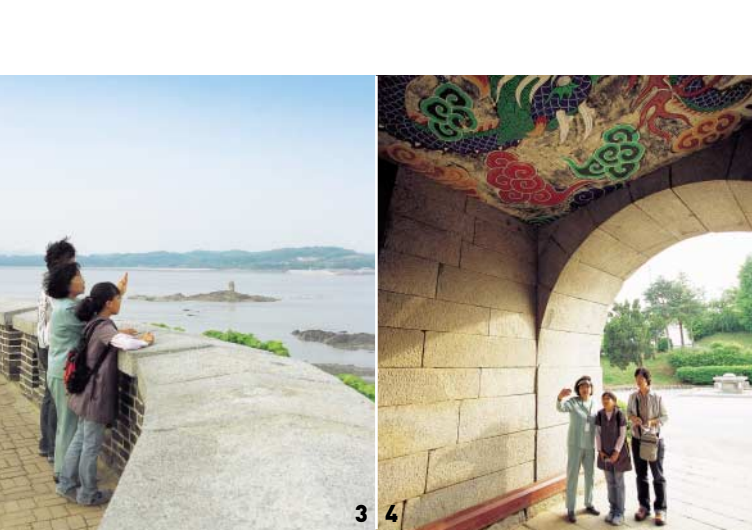
강화와 김포반도 사이를 흐르는 염하 앞바다엔 조그만 무인등대가 보인다. 바다 속에 암반이 많아서 썰물일 때는 배가 피할 수 있으나 만조일 때는 위험해서 큰 바위 위에 등대를 세운 것이다. “강화에는 불속불쑥 튀어나온 곳이 많아요. 섬이기 때문에 해안이 톱니바퀴처럼 생겨 진(대대), 보(중대), 돈대(소대)를 만든 것이지요. 지금은 많이 간척돼서 동그렇게 됐지만 강화를 역사관에 가면 톱니처럼 된 옛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초지진 성벽은 1973년 석축을 쌓고 개보수를 했다. 성벽을 쌓고 있는 네모난 돌들, 모서리 아귀가 잘 맞은 새 돌과 세월을 살을 깎아낸 둥그런 옛 돌들이 한 눈에 봐도 개축한 흔적이 역력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문화재 복원전문가의 세심한 관찰이 있었더라면 싶다. 수원의 화성이나 강화의 광성보를 비롯해 모든 성벽 위 층안 한쌍의 구멍은 3개씩이다. 양쪽은 직각으로 멀리 오는 적을 보는 눈이고 가운데의 45도 기울어져 있는 구멍은 가까이 오는 적을 살피는 눈이다. 그런데 초지진은 들쭉날쭉 3개도 있고 2개도 있고 간격이 맞질 않는다. 아쉬운 마음이 든다. 저 구멍은 환기창이 아니다. 전망 좋은 곳을 구경하기 위한 유리 없는 창도 아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살벌한 눈들이 목숨을 걸고 들여다보던 좁은 문이다. 홍이포가 적군을 향해 조준되고 조국을 위해 불덩이를 토 하던 화구(火口)였던 것이다.

바다는 파도를 잠재우고 고요했다. 전쟁을 모르는 21세기 사람들에게 시치미를 떼는 듯 했다.



1 초지진의 홍이포 2 탄흔이 남아있는 초지진 성벽



3 슬픈 역사를 안고 흐르는 염하 4 덕진진 성문 '공조루'
5 덕진진 남장포대

사생결단... 그들은 마지막 한명까지 싸웠다

일행은 인근에 있는 덕진진으로 향했다. 덕진진은 강화 12진보의 하나이며, 덕진진은 덕포진과 더불어 해협의 관문을 지키는 강화도 제1의 포대였다.

해설사는 입구에 들어서자 제일 먼저 보인는 성문인 '공조루(拱潮樓)' 앞에서 현판을 가리켰다.

“이 공조루를 지나가면 남장포대와 덕진돈대, 경고비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원형에 가깝게 복원된 곳이 바로 반달모양의 남장포대인데 15문의 포대가 남아있고, 자연적인 지형을 잘 이용해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해상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지요. 선조들의 슬기로움을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1866년 병인양요 때 양헌수(梁憲洙)의 부대가 밤의 어둠을 타서 이 진을 거쳐 삼랑성으로 들어가 프랑스군을 격파했고, 1871년 신미양요 때는 J.로저스 중장이 이끄는 미국극동함대와 이곳에서 치열한 포격전을 벌였으나 초지진에 상륙한 미국해병대에 의해 점령당하는 비운을 맞았다.

이때 성첩(城堞)과 문루(門樓)가 모두 파괴되고 문루터만 남게 되었는데, 1976년 문루를 다시 세우고 돈대(墩臺)를 보수했으며 남장포대도 개축하게 되었다.

처절한 전쟁을 치루고도 여전히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강화를 보며 처음부터 끝까지 숙연함을 놓지 않았다.

글 _ 조은숙 (부평사람들 기자 · eyagi9090@yahoo.co.kr) / 사진 _ 김정식 (자유사진가 · jsjsm@incheon.go.kr)

덕진진 경고비 (향토유적 제 9호)

함부로 통과하지 말라

덕진진에서 관찰하던 사각형의 덕진돈대가 있다. 덕진돈대를 뒤로 한 바퀴 둘러 바다 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대원군이 세운 '경고비'가 있다. 이 비(碑)는 조선 고종 4년(1867)에 대원군의 명에 의해 강화 덕진 첨사가 건립했다. 개화 여명기에 외국 선박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경고비로서 비문에 '해문방수타국선신물과(海門防守他國船慎勿過)'라 음각되어 있다. 이는 어떠한 외국 선박도 함부로 이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는 쇄국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경고비의 우측 상단 하단부에는 탄흔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 비는 해협을 바라보고 있으며 바로 앞은 낭떠러지이다.



부가가치 물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글 _ 이상근 · 삼영물류(주) 사장

우리 인천이 동북아의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느냐의 성공여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21세기 생존여부이며,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새로운 지역경제의 성장엔진 마련이라는 의미가 있다.

인천이 동북아물류중심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물류서비스 수준제고, 글로벌 물류기업의 유치 및 물류전문기업의 육성, 물류전문인력의 양성과 같은 측면과 도로망과 도시물류단지 등 물류기반시설의 확충, 인천공항 및 항만의 배후단지활성화 등의 인프라 측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각각의 정책과제들을 동시에 꾸준히 추진하여야만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인천지역의 물류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 측면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물류 기반시설의 확충 면에서 화물터미널시설, 화물창고, 연계 교통망의 적기 확충 외에 '인천광역시 도시물류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물류시설 확충계획이 실현돼야 한다. 즉 전체 522만평 중 국제 및 지역간 물류시설인 경제자유구역 내 공항관세자유지역 등 4곳

의 306만평과 배후지역건설인 북항 배후지 등 5곳의 202만평 외에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은 도시내 물류시설인 남부권 물류기지, 동부권 물류기지, 북부권 물류기지의 3곳의 14만평을 조기에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국적기업 및 국내의 제조 및 유통 기업들이 그 기업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물류거점을 정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것이다. 즉 화주기업 중 한국내 유통과 중국 등 동북아지역 유통을 동시에 수행하여야하는 다국적기업, 국내유통보다는 동북아지역 유통을 주로 수행하는 다국적기업,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한국내 유통을 주로하는 다국적기업 등의 기업 성격에 맞게 공항관세지역, 송도신항배후지, 도시물류유통단지 등 그 물류거점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물류기업이나 국내물류기업이 물류거점을 선택하는 입장에서 최종 배달지가 전량 한국인 경우, 조립 및 물류가공 등 부가가치서비스(Value Added Service) 과정을 거쳐 대부분 중국, 일본 등 제3국으로 배송되는 경우, 한국내 유통과 제3국으로 유통을 동시에 수행하는 물류거점 등 그 성격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

이러한 도시내 물류시설은 또한 도로체증의 심화로 인한 혼잡구간 비용을 줄이고, 항만체제로 인한 체선율 상상을 줄일 수 있으며, 물류 거점시설 간 연계 수송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2001년 기준 17.6%에 달하는 지역물류비의 절감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인천 공항과 항만 및 배후단지의 활성화방안 중에서 특히 인천지역내 경쟁력 있는 포워더 육성이 필요하다. 포워더가 단순한 복합운송 주산업의 개념을 넘어 종합물류업자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경쟁력 있는 업체로 키워야 하겠다.

이를 통해서 단순한 by-pass가 아니고 컨테이너를 open하고 더 나가서 포장박스를 개봉하여 조립가공 등의 부가가치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단순한 환적의 몇 배의 부가가치가 우리 인천 지역사회에서 창출되도록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배후단지 및 도시물류단지 확충이 필수적이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합운송주산업자의 통관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서비스의 일관성 문제뿐만 아니라, 구미의 포워더의 수익이 운송, 통관, 보관 및 물류가공 수입으로 각각 3분되어 있는데 반해 우리 포워더는 단순 운송수입에 의존함으로써 외국 포워더에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인천지역의 물류산업 활성화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 중심지화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그리고 관련업계 및 지역주민 등 모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각의 부문에서의 목표와 비전을 명확히 하고, 현재의 강점을 강화하면서 약점을 보완하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수적인 요건이 될 것이다.

이는 90년대 이후 제조업 성장의 정체 내지는 후퇴를 보이고 있는 우리 인천지역의 생산과 고용 등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공원 자유공원

그림 _ 김신 (www.cyworld.com/sinitoon)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노인요양 보험제도

글 _ 박승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차장)

노인요양보험제도란 국민이 부담한 일정 보험료로 재원을 마련하여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과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개월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복지 등 모든 형태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증가하여 이미 2000년에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같이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 감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난 11월, 25세부터 59세의 경제활동을 하는 전국의 1,027명에게 노인요양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한국 사회의 노인부양 문제 수준이 심각하다’가 87.3%, ‘노인문제가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가 73.9%,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 부담 용의가 있다’가 71.3%,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가 85.2%를 나타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노인요양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20일 보건복지부 시범지역선정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될 노인요양보장 1차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수원, 광주 남구,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군으로 정했다. 대상 지역에서는 공공부조대상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4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중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대한 요양 및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재가서비스 10종과 시설 3종에 대한 현물 제공을 2년간의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007년도부터는 건강보험요양급여로 편입하고, 2010년부터는 건강보험가입자를 포함하여 독립된 제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첫째, 병원 입원시 혜택이 없는 간병비(월 100여만 원)가 급여범위로 포함되는 등 요양시설 등을 이용할때 20% 정도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둘째,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병에 따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재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되면서 노인의료비가 대폭 감소된다.

셋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인간병 인력과 전문 간호사 등의 수요가 증가되어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넷째,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다만, 노인요양보험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운영주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사례관리 및 의료이용정보 제공)를 연계시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재원부담에 있어 보험료가 포함 (보험료+국고·담배부담금= 80%, 본인 20%)되므로 재정수입을 담당하는 기관이 지출도 함께 담당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이다.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벨소리에 현혹되면 안돼요

느닷없이 울리는 휴대폰을 보니 모르는 번호가 찍혀있다. 통화버튼을 누르면 건너편에서 들리는 예쁜 목소리. “안녕하세요. ○○회사인데요. 이번에 좋은 상품이 있어서 전화드리

는 겁니다...” 평소 휴대폰요금이 부담스러웠던 청천동의 김찬용(가명·35)씨는 유명통신회사를 사 청하며 12개월 동안 월 49,000원만 내면 휴대폰 무료 400분, 평생 요금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고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주었다. 그러나 알고 보니 400분 통화는 선불통화카드를 구입한 것이었고, 요금 할인혜택을 받기 위한 사용절차가 너무 번거로워 탈퇴의사를 밝혔지만 상담원은 소비자사정으로 탈퇴는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연수동에 사는 이성희(가명·29)씨는 화장품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질문에 대답을 해 주었다. 얼마 후 다시 전화가 와서 사은품을 보내주겠다며 주소와 이름, 신용불량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카드번호를 불러 달라고 해 알려 주었다. 3주후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에 이 회사의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72만원이 12개월 할부로 청구되어 있었다. 이씨는 업체에 항의하고 취소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업체는 담당자의 퇴직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계약한 것이 분명하니 취소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할 뿐이었다.



좋은 땅 정보부터 할인회원권, 선불통화카드, 휴대폰 할인판매, 화장품 설문조사까지 일주일이면 몇 통의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는다. 휴대전화가 일반화되고 텔레마케팅이 유력한 판매기법으로 각광받게 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최근 통신요금을 할인해준다는 텔레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는데, 특정 소비자에 대한 통신요금 할인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회사에서 특정고객에 대해 통신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는 없다. 이러한 전화를 하는 업체는 대부분 선불전화카드를 판매하는 할인회원권업체로 실제 할인혜택은 그리 크지 않다.

텔레마케터는 고용된 업체에서 계약건수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허위나 과장된 사실을 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텔레마케터가 신용조회 등을 빙자해 카드번호를 불러 달라고 하는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카드결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의사가 없다면 신용카드번호를 불러주지 않아야 한다. 또한 최근 휴대폰 소액결제가 활성화돼 인터넷 등에서 휴대폰번호·주민등록번호와 결제승인번호를 입력하면 손쉽게 결제가 되므로, 주민등록번호나 결제승인번호를 무심코 알려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텔레마케팅(전화권유판매)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 때 전화를 이용한 의사표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발송해야 한다.

자료제공 _ 인천시 소비자생활센터(442-9872 <http://consumer.incheon.go.kr>)



햇빛, 모래 언덕, 호텔 카리스

그리고 백하은 사장

햇빛이 이렇도록 찬란한 5월에는 아무하고도 약속을 말아야 한다. 지난달에도 몸살을 앓았다. 그래. 미열에 들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지 않았느냐. 모란은 이런 날에 제 앞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몽롱한 것이 좋아.

그리고 얼마 뒤, 사막을 가는 사람처럼 온몸이 차츰 열에 달구어져 이런 헛소리를 지껄인 것 같다. 서방(西方) 지나 노을 아래 낙타 발자국이 찍혀 있고 승냥이 울음인지, 바람 소리인지, 여인숙 벽 뒤에서 소리가 난다. 구불 구불한 길 위에, 누구의 얼굴같이 생긴 둥근 달이 떠가는 쪽도 서쪽 하늘이다.

건달처럼 차 문을 닫고, 건달처럼 옆방에 앉아 기다리는데 호텔 카리스의 여사장은 좀체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 햇빛 때문에 타고 간 자동차가 자꾸 비틀거렸고, 그 때문에 여사장과의 약속이 조금 늦어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해 주고 일어설까. 알베르 카뮈는 알제의 햇빛에 대해 뭐라고 썼던가.

그러나 늦은 것은 죄다! 그러니까 그 벌을 먹어야 한다. 한참 만에 큰 눈을 조금 더 크게 뜨면서, 그리고 그와 더불어 더 이쁘게 시침을 때면서 키가 늘씬한 여자 하나가 문을 민다. 하은! ‘순 한글 이름이니까 쓰고 싶으면 河銀이라고 써도 좋고, 霞銀이라고 해도 좋다면서’ 멋스럽고 아름다운 이름을 인쇄한 황금색 명함을 내민다. 백하은 씨. 미녀는 아니다. 그러나 눈동자가 초저녁별처럼 반짝이고 총명해 보인다.

“전 20일인 줄 알았는데요.”

아아, 이럴 줄 알았다. 이래서 여자는 죄가 없는 것이다.

“미리 전화를 했...”

같이 간 편집장도 난처한 듯 표정으로만 이런 말소리를 만든다. 양쪽이 다 무엇인가 어긋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약속 날짜를 잘못 알아 다른 일을 보느라고 화장도 의상도 제대로 못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

그러나 여자는 아름답고 건강해 보인다. 한 묶음으로 동그랗게 머리를 뒤로 모아 무슨 망 같은 것을 씌운 머리, 아무지도 당차 보이면서도 어딘가 한 구석 선해 보이는 얼굴. 그것은 아주 미미하게, 거의 판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 눈 꼬리가 아래로 쳐져 내려간, 그런 인상이어서일 것이다. 또 햇빛처럼 아무 가식 없이 아주 크게 입을 열고 자주 웃는, 그 좋은 모습 때문일 수도 있다.

더구나 짧게, 짧게 떠올랐다 사라지는, 그 풍부한 표정들이라니! 화장을 안 한 그 맨 얼굴 표정들이 풍기는 잘 익은 과일 냄새. 자두 알들이 가득 담긴 과일 바구니! 사십 중반이 다 된 여자의 매력이 사람을 또 이렇게 사로잡는 것이다. 그렇다. 내면의 많은 느낌들을 싱싱하고 세련되게 표현하는 것은 아마 호텔 여사장이어서일 게다. 그런 방법, 그런 카리스마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알고 있겠지.



“궁금하세요? 직업이 어느 정도 성격을 바꾸어 놓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워낙 타고 난 것이 그렇기도 하지만…”

호텔 카리스, 그리고 백하은 사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흔한 호텔의 이미지 때문에도 궁금한 것이 사실이다. 경제적 수완도 있어야 할 것이고, 밤의 세계를 이기고 누를 수 있는 완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생기는 수많은 시비와 유혹과 곡절을 감내할 수 있는 의지도 있어야 할 것이다. 백하은 씨는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무궁화 4개 짜리의 호텔 사장이 되었을까.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모 대학 사범대 교육과를 나와서 선생이 아닌, 인천시 계양구의 호텔 카리스, 거기 사장 이 된 것은 남편과 하느님 힘일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 공대 출신이면서도 금융과 경제 방면 베테랑 전문가가 된 남편과, 조폭(組暴) 하나 일쑤 못하게 해 주시는 하느님(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상상이라고 여사장은 말한다. 실제 이 호텔 주변에 그런 폭력의 세계는 없다는 것이다.), 거기에 여자가 가지고 있던 애초의 꿈이 한데 합쳐져 호텔 사장으로 밀어 올린 것이다. 그것이 다른 한편 전주(全州) 여자를 인천 사람으로 만든 까닭도 되고.

백하은 씨는 부친의 엄명에 따라 억지로 걸었던 선생의 길이 못내 싫어서 대학을 졸업하자 서울의 다른 대학 관광대학원에 진학했다. 상과가 적성에 맞았던 여자는 그제야 비로소 구미가 당기는 호텔 경영학을 배운 것이다. 그 후 워커힐에서 연회 예약 지배인으로 5, 6년, 몇 군데 대학에 시간 강사, 그리고 하느님이 자꾸 이리로 이끌어 어찌어찌 이 호텔을 인수하기에 이른 것. 그때가 2000년 4월. 좀 돌아오기는 했어도 마음에 들고 행복했다.

그런 까닭에 호텔 카리스에는 가끔 하느님이 와 묵으시는 것이다. 오늘처럼 눈부신 햇빛으로 오시고, 어느 날은 빗방울로, 어느 날은 미풍으로 오신다고 한다. 그 분과는 거리가 먼 건달 같은 사람에게도 지극히 희미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느껴진다. 호텔 옥상에서, 지하실 계단에서, 커피숍 구석 자리에서, 하느님의 뒷모습이 언뜻 스쳐지나가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물론 여자의 백금 귀고리나 자유가 눈금의 좌우를 넘어 다니기 때문에, 드문드문 충동을 하기도 하고 갈등도 겪지만 여전히 하느님은 그녀의 든든한 매니저이자, 스폰서이다.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 주시는 분. 은사(恩賜)를 뜻하는 ‘CHARIS’가 이 호텔의 이름이 된 것은 그런 연유다.

이런 긴 이야기를 하면서 내내 여자는 참으로 묘한 카리스마를 내보인다. 남의 이야기는 골라서 못 알아듣는 재능, 특별한 달란트를 가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이라도 사(邪)가 있어서가 아니다. 여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사진가는 호텔 어딘가를 헤매 다니다 와서 여사장에 대해 ‘열심, 검소’라는 칭찬의 말까지 었는다.

“.....”

“.....”

그날은 햇빛이 너무 밝았고, 더웠다. 여자는 세련되었고..., 하지만 여자는 별 수 없이 그까짓 사진 때문에 안 했던 화장을 하고 있다. ‘해처럼 살자’면서 몇 번씩 같은 장면을 찍고, 또 찍고 한다. ‘호텔 캘리포니아’를 듣다가 현기증을 앓는 사람은 사막을 건너 벌써 돌아왔는데, 노래방 마이크까지 잡고 있다.

그렇다면, 백하은 씨, 호텔 카리스의 여사장에게는 이런 시를 보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구(砂丘) 위에서는
호궁(胡弓)을 뜯는
님프의 동화가 그림다.

계절풍이여
카라반의 방울소리를
실어다 다오.

장송보(葬送譜)도 없이
나는 사구 위에서
풍장(風葬)이 되는고나.

날마다 밤마다
나는 한 개의 실루엣으로
괴로이 있다.

깨어진 오르간이
묘연(杳然)한 요람(搖籃)의 노래를
부른다, 귀의 탓인지

장송보도 없이
나는 사구 위에서
풍장이 되는고나.

그림은 사람아.

(이한직, ‘풍장’ 전문)



가족과 함께 떠난 여행



우리 가족은 1년에 한번씩 여행을 간다. 함께 자고 함께 샤워하고 아이들과의 이런 시간이 참 좋다. 처음엔 우리부부만 다녀오는 여행이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아이들과 함께 떠나기 시작했다. 혼잡한 도시를 벗어나 깊은 산속으로의 여행. 늘 그곳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린 많이 변해 있다. 아이들은 많이 자라있고 우리 부부는 생활 속에 많이 지쳐있다. 5월초 해마다 이쯤이면 우리 가족의 마음은 벌써 공주 마곡사로 떠나 있다. 복잡한 도시 탈출. 긴 여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좋다. 깨끗한 공기 조용한 산올림. 우리 가족은 내년 이쯤이면 또 어디로 갈까 하고 고민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또 이곳을 찾아 다시 올 것이다. 이곳은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족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어느 노래 가사가 생각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 그렇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을 것이다. 서로 칭찬하고 고마워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가족이 됐으면 한다. 우리 가족은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서 다시 도시의 생활을 힘차게 시작할 것이다.

장미애 (서구 석남3동)

어버이날에

이번 주 내내 아이의 학교 도서관개관을 위해 다른 자모들과 작업하고 어린이날에는 문학경기장에서 하루 종일 아이와 씨름했다. 주말에는 미리 예약해둔 동물진료 체험을 위해 서울대공원에 다녀와 좀 피곤하기도 했다. 그렇게 한주를 정신없이 보내고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도 못하는 사이 어버이날이 되었다. 해마다 이맘 때쯤이면 늘 걱겨 되는 고민이다. 올해는 어떤 선물을 해야 할까? 건강식품? 현금? 화장품? 친정 부모님은 건강보조식품이나 한약 등을 너무 싫어하신다. 현금으로 하자니 액수가 문제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 어느덧 점심때. 일단 수화기를 들고 "아빠, 저예요. 큰 딸.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이다" "그러면요, 저희가 곧 갈테니 점심 먹고 우리 꽃구경 가요!" "그러자"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시큰둥한 기색이 느껴진다. "엄마는 뭐하세요?" "컴퓨터하고 있는데 화가 나서 전화도 안받는다." 순간 당



황했지만, "그래도 좀 바꿔주세요" "기다려라" "나다. 뭐?" "응, 우리 밥 먹구 매립지에 꽃구경 가자구요~~" "알았다" 울트라 초특급으로 온 식구가 외출준비를 하고 총알같이 달려갔더니 이미 외출준비를 마치고 두팔을 벌리며 외손주를 맞이하시는 두 분. 서운했던 마음은 이미 털어버리신 듯. 근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김포 쓰레기매립지의 야생화전시와 매립지 견학을 하며 즐거워하신다. 돌아오는 차안에서 "관심을 가져주기만 해도 좋다는거 아냐?" 라고 혼잣 말씀인듯 아닌듯한 조용한 목소리에 어찌나 죄송하던지. 내 생활에 바쁘다보니 부모님 생각을 잠시 접어 놓은 것이 사실인데 나를 보고 자라는 아이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린다.

이재경 (남동구 도림동)

仁川悲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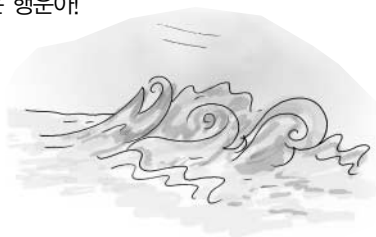
파도가 친다
침묵의 바다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득한 옛날
비류 백제의 도읍을 물리친 이 땅은...!
구한말 선교사들의 길목
그리고 상인들의 길목으로!

왜놈들의 을사보호 조약
수많은 사연의 눈물이 파도친다
내가 겪은 6·25를 잊으라
함포 사격은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나르는 파편은 비가 되어 내렸지!
출렁이는 밤바다
무섭게 춤을 추고
아 ~ 그 밤 바다여!
6·25를 겪은 우리들은
송도에 세워진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그 때 그 모습!

나는 지금 운 좋게 살아남은 행운아!
감사하며 고개 숙인다

세월은 말한다
파도는 말한다
그 때 슬펐던 이야기를
슬피울며 떠나간 영혼들
지금 하늘에서 지켜보겠지
평화를 강구하며.....
파도 치는 저 바다는!!!



김하주 (연수구 선학동)

그리움이 묻어나서 더욱 슬픈 달

아주 오래 전 친구들과 언덕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며 신나하던 모습이 생각난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재미있다고 즐거워하던 내 모습이 지금은 아주 오래 전 추억으로 남아 있다. 어느날은 자전거를 타다가 언덕에서 굴러 떨어진 적이 있다. 무릎을 크게 다쳐서 울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가 달려와 담뱃재로 상처를 치료해주신 것이 기억난다. 할머니의 주머니는 담배냄새로 진동을 했고 친구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엄마는 화를 내셨지만 할머니는 다독거리며 앞으로 그러지 말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십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난 무릎의 상처는 아직도 지울 수 없는 흔적처럼 남아있다. 십 년전 6월. 이미 바람과 함께 자연으로 돌아가신 할머니 얼굴이 자꾸 떠오른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진첩을 들춰보면서 그때 친구들과 할머니의 낡은 사진 한 장을 보며 웃곤 한다. 먼 훗날 내 어릴 적 이야기를 하며 내 곁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울고 웃고 떠드는 그런 날들이 올테지. 이미 내 가슴은 어린 날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미 오래 전 가슴속에 짙은 향기로 남아 있는 우리 할머니가 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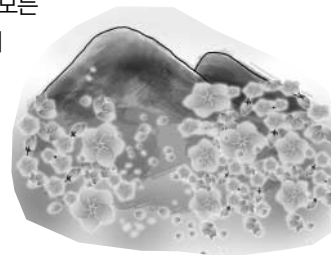


오동원 (남구 학익1동)

월미산에 올라서

내가 월미산에 처음 간 것은 6·25전쟁이 나기 바로 전 초등학교 2학년 봄소풍 때였다. 그때는 다리가 있었다. 선생님의 구령에 따라서 노래를 부르며 건넌었다. 그러나 지금 육십넘어서 간 월미산은 너무 많이 변해 있었다. 뱃나무가 울창해서 하늘이 조금밖에 안보였다. 조금 불편한 몸을 가진 남편과 정상까지 올라갔다. 오르는 동안 여러 모습의 사람들을 만났다. 반바지 차림의 달리기 하는 사람과 부지런히 걷는 사람... 정상에서 만난 강원도 강릉에서 구경왔다는 아주머니에게 사탕을 한주먹 주며 금방 친해졌다. 앞으로 탁트인 눈앞에는 멀리 작약도를 비롯해서 영종도 비행장 쪽까지 크고 작은 섬이 모두 보였다. 인천항에 들어오는 큰 배 그리고 공장과 연결되어 들어가는 긴 선로같은 것도 보였다. 멀리 청량산 수봉공원 자유공원까지. 몸이 조금 불편해 힘은 들어도 천천히 잘 걸어온 남편은 좋아했다. 아마 처음 온 모든 사람들은 '참 좋다' 소리를 연발할 것이다. 내려 올때는 여러 가지 들꽃들의 이름을 팻말에 써 놓아서 자연공부도 할 수 있다. 풀냄새와 바다냄새를 코끝으로 음미하는 나는 65년전 전동에서 태어난 영원한 인천인이다. 인천에 살아도 생활이 바빠서 월미산에 못올라 보신 모든 분들께 자녀들과 함께 가기를 권하고 싶다.

강옥자 (동구 송림동)



인천을 소중히

모처럼 가족들과 주말을 이용해 인천대공원을 찾았습니다. 도심속에서 자연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어 좋습니다.



벚꽃 축제 기간이 거의 끝

난 시기인데도 벚꽃들이 바

람이 불면 꽃비가 되어 쏟아지더군요. 평소엔 걷기도 힘든 정문에서 후문까지의 길을 사람들에게 밀려가듯이 힘든 기색도 없이 꽃에 취해 걸었습니다. 모든 나무 밑은 가족들의 식탁이 되더군요. 사람들 구경, 맛있는 도시락, 흠날리는 꽃잎. 이런 곳이 있어 정말 좋구나 느꼈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연보호, 공중도덕이라는 말이 사라진지 오래되었나 봐요. 매스컴에서 듣기도 어렵고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여기저기 버려진 쓰레기들, 손 씻는 수돗가엔 빈 음료수 캔이 무지막지하게 흩어져 있었구요. 담배 연기 냄새로 모처럼 맑은 공기를 마시러 온 가족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어요.

큰 나무 동강이를 들고 무지막지하게 뱃나무를 내려치며 놓고 있는 초등학교생을 보았습니다. 나무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나무를 때리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그 나무는 곧 꽃잎이 모두 떨어져 버렸답니다. 부모가 있어도 말리지를 않더군요. "자연보호 해야지 꼬마야. 그러면 안되지." 제가 한마디 했더니 아이의 엄마가 부끄러운 표정이 아닌 정색으로 대하더군요. 인천대공원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설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집안의 물건 소중하게 여기듯 인천시민이 인천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바른 것과 나쁜 것을 옳게 구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같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명자 (서구 검암동)

다음달 테마는 바다

다음달 테마는 '바다'입니다.
바다와 관련된 글(200자 원고지 3매)과
재미있는 사진을 보내 주세요.

책에 실린 분께는 작은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_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인터넷 신청 : www.incheon.go.kr → 굿모닝인천 메뉴 클릭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6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_ 440-2072)



누가 누가 멀리 날리나

작년 초여름의 문턱에서 귀여운 아이들이 민들레 흙씨를 붙여 멀리멀리 날리고 있습니다. 민들레 흙씨를 후~ 붙여 날리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믿고 열심히 붙여보는데, 우리 꼬맹이 아가씨는 아직 부는 방법을 몰라 입만 뻐죽 내밀며 부는 흥네를 내네요.
고영남 (남구 주안1동)



강태공들의 합창

호반의 도시 춘천입니다. 정말 열심히 설명을 듣고 있죠.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이랍니다.
윤연숙 (남구 용현1동)

내 배꼽 좀 보세요~

이번 어린이날 문학경기장역앞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아이들입니다.
김승엽 (부평구 십정2동)



나, 떨고 있니?

서예대회때 사진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한지 석달만에 힘들게 서예대회에서 쓴 글씨입니다. 무척 떨었답니다.
김날빛다히 (길주초등학교 1학년)



여기 보라

신나는 봄소풍. 모두들 맛나게 점심을 먹고 있는데 카메라를 들이대니 갑자기 어수선해지네요. ^^ 늘 그렇듯이 사진 찍을 때 꼭 끼어드는 개구진 친구들. 지금은 그 친구들이 어엿한 아빠, 엄마가 되어있답니다.
오현숙 (부평구 산곡동)



내가 누구게?

연수구 동춘2동에서 해마다 열리는 '동막제'입니다. 투호, 팔씨름, 줄다리기, OX퀴즈, 태권도시범 등 많은 행사가 열렸고 아파트별로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었답니다. 올해가 세 번째인데 여장을 한 아저씨들이 신기해서 찍었어요.
윤소진 (연수구 동춘2동)



두 팔을 벌려봐 용기가 생겨

저는 어려서 읽은 갈매기의 꿈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두 팔을 벌렸습니다. 언젠가 열심히 살다 보면 조나단처럼 나 자신을 극복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겠죠. 어렵사리 얻은 휴가를 너무 멋지게 그리고 재충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허락받은 자유라 그런지 더욱 행복 했습니다.
송성천 (남구 도화동)



인호는 너무 급했다

아이가 낯장 자는 사이 고추 좀 쪼개고 있는데 얼마나 급하면 양쪽에 다른 신발을 신었을까? 아님 인호는 누나 샌들을 좋아하는 걸까? 누나가 당장 따라 올텐데...
유인선 (남구 도화동)



잘 커주셔서 고맙다 아들아

유치원때 곱슬머리로 마냥 이쁘기만 했던 막둥이가 몇 주 전 결혼을 했습니다. 능글픈 모습으로 잘 커준 우리 막둥이에게 엄마가 고맙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행복하게 잘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윤옥희 (남구 주안7동)

info box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으로 오세요

1. 제5회 소외계층을 위한 인천지역문화운동
올해로 다섯 번째 소외계층을 위한 인천지역 문화운동이 열립니다. 지역문화발전과 더불어 문화 축제 분위기를 고취시켜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많은 인천시민이 참여 할 수 있는 범시민운동입니다.
 - 행사기간 : 6월 11일(토) 오후 1시~ 오후 5시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 행사내용 : <1부> 페이스페인팅, 행사 소개 및 인사, 레크레이션 <2부> 공연 : 가족뮤지컬 <후크선장>
 - 관람료 : 무료
 2. 제4회 청소년문화축제 <자유시간>
철نا적이고 상업적인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요즘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발전을 위해 '청소년 문화축제 - 자유시간'을 엽니다.
 - 기간 : 6월 25일(토) 오후 2시 ~ 오후 5시 30분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 행사내용 : <1부> 행사 취지 및 소개, 뮤지컬 공연 <2부> 레크레이션, 청소년 참여마당
 - 관람료 : 무료
- 문의 _ 교육극단 보물상자 (813-8040)

인하대병원 무료 공개강좌

인하대병원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료 공개강좌를 엽니다.

- 일시 : 6월 28일(화) 오후 3시
- 장소 : 인하대병원 3층 대강당
- 강좌내용 :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예방과 치료
- 강사교수 : 안과 이은석 교수
- 기타 : 참석하시는 분에게는 무료 주차권이 발급됩니다.

문의 _ 인하대병원 교육연구부(890-2640~2)

2005년도 신지식인 선발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인간상 정립과 국민 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다양한 지식정보를 사회적으로 공유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지식인 선발 및 포상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대상 : 사회 각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국민
 - 자격요건 : 창의적 사고와 발상으로 일하는 방식 등을 혁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식을 공유하여 해당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기존 신지식인은 동일분야 신청불가)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5월 11일 ~ 7월 31일
 - 접수장소 : 군·구 자치행정과 등 관련부서
 - 신청방법 : 소정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접수 (7월 31일 도착분한)
 - 선발분야 및 인원
 - 선발분야 : 총 10개 분야(농업, 어업, 임업, 중소기업, 특허, 근로, 교육, 문화예술, 금융, 가정)
 - 선발인원 : 100명 내외
 - 심사기준 : 정보 습득성, 창조적 적응성, 방법의 혁신성, 가치 창출성, 사회적 공유성
 - 포상시기 및 내역
 - 포상시기 : 12월 (별도 공지예정)
 - 우수 신지식인은 정부포상 수여 및 부상금 지급 (15명 내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지식인 DB 홈페이지 (www.sinjisik.net) 참조
- 문의 _ 시 자치행정과(440-2444), 행정자치부 제도혁신팀 (02-3703-4673)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됩니다

동북아의 비즈니스 물류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2005년을 인천투자의 해로 선포하여 국내외 자본유치와 대형사업을 본격적으로

인천 한중문화관 주말 상설공연 열립니다

지난 4월에 개관한 한중문화관에서 주말상설공연이 열립니다. 한중문화관 상설 전시관과 공연장에서 열리는 공연은 월미 관광특구 내 차이나타운에 찾아오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천과 중국의 전통문화예술 공연과 체험 한마당을 제공할 것입니다.

• 공연일정

공 연 일 정	공 연 단 체	공 연 내 용	비 고
6월 4일(토) 3시	풍물패, 잔치마당예술단	打&樂 콘서트-두드림의 즐거움	인천시 지정 전문예술단체, 부평풍물대축제 기획단
6월 5일(일) 3시	사)서도소리 보존회인천지회	박준영 국악단의 국악한마당	중요무형문화제 29호 서도소리 준보유자
6월 11일(토) 3시	극단 꼬마세상	가족극	극단 꼬마세상
6월 12일(일) 3시	한울소리	퓨전타악 퍼포먼	전)김덕수 사물놀이패 단원
6월 18일(토) 3시	풍물패, 잔치마당예술단	打&樂 콘서트-두드림의 즐거움	인천시 지정 전문예술단체, 부평풍물대축제 기획단
6월 19일(일) 3시	풍물패, 잔치마당예술단	打&樂 콘서트-두드림의 즐거움	인천시 지정 전문예술단체, 부평풍물대축제 기획단
6월 25일(토) 3시	범패와 작법무	최경희 무용단, 범패와 작법무	인천무형문화제 11-가호
6월 26일(일) 3시	풍물패 잔치마당예술단	打&樂 콘서트-두드림의 즐거움	인천시 지정 전문예술단체, 부평풍물대축제 기획단

문의 _ 풍물패 잔치마당 (501-1454)

로 준비하는 단계에서 막대한 재정의 수요가 예상되는데, 효율적인 재정관리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이 납부한 세금의 가치를 높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재정활동 과정에서 생겨나는 각종 거래를 자산, 부채, 순자산, 비용, 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한 해 동안 우리시가 사용한 예산의 성과를 몇 장의 재무보고서로 압축하여 한눈에 우리시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의 _ 시 회계과 (440-2382)

제2기 부부가 함께 하는 평화교실

사)인천내일을여는집 가정폭력상담소는 1999년 개소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및 자녀상담,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자녀 보호시설 입소 연계, 의료지원 가정폭력 행위자상담, 전문상담원교육, 심화교육, MBTI 성격유형검사, 성희롱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에서 여성부의 후원으로 ‘부부가 함께 하는 평화교실’을 열고 2005년 2기 참가 부부 5쌍을 모집합니다.

- 일시 : 부부상담 5회, 부부집단상담 12회- 6월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 10시(12주)
- 대상 : 부부 5쌍
- 내용 : MBTI성격유형검사, 의사소통훈련, ABC모델, 스트레스와 분노 다루기 등
- 접수 : 선착순 접수
- 장소 : 사)인천내일을여는집 가정폭력상담소, 해인교회

문의 _ 사)인천내일을여는집 가정폭력상담소 (543-7179)

제10기 국악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운영되는 인천 국악회관의 국악문화학교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강사진으로부터 국악을 배울 수 있는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좌기간 : 6월 13일(월) ~ 9월 3일(토)
- 접수기간 : 5월 9일(월)부터 계속
- 접수방법 : 방문, 인터넷, FAX, 전화접수
- 모집분야 : 가야금, 민요·장구, 풍물, 모듬북, 한국무용, 판소리, 해금, 대금, 단소, 한자교실, 단학
- 기타 :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에게는 무료강습(단 인원제한)

문의 _ 국악문화회관 (875-4644, 876-8364

www.kukakhall.com (네이버에서 국악회관을 치세요))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신입생 모집(야간)

- 모집전공 : 경영·무역, 부동산관리 〇〇명
- 수업 : 2년(4학기) 화·목요일, 오후 6시30분 ~ 10시 수업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고사
- 전형일정 <일반전형>
 - 원서교부 및 접수 : 6월 7일(화) ~ 17일(금)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교부 및 접수처 : 경영대학원 교학부(본관 519호) 오전 9시 ~ 오후 5시
 - 전형일시(면접고사) 및 대기장소 : 6월 24일(금) 오후 2시 경 상대 세미나실(본관 512호)
 - 합격자발표 : 7월 4일 (월) 인천대학교 홈페이지

이 달의 우리 고장 국가유공자

신현준 장군 (1915. 10. 23. ~ 현재)



신현준 장군은 1949년 2월 1일 초대 해병대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같은 해 4월 15일 해병대를 창설하는데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해병대 창설 당시 신 장군은 “해병대는 일치단결하여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서 유사시에 대비한 최강의 부대가 되도록 교육 훈련에 정진하자”고 역설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우리나라가 시장 경제 바탕 하에서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는 기반을 이루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현준 장군은 한국 전쟁을 거쳐 1953년 10월까지 사령관으로 재직하였고 1951년 8월 일명 김일성 고지 전투 승리를 포함한 해병대가 이룩한 수많은 전과에 혁혁한 공을 세워 해병대의 살아 있는 전설로 추앙받

고 있다.

신 장군의 혁혁한 공을 인정하여 정부에서는 태극 무공훈장 등 다수의 훈장을 수여하였다. 신 장군이 이룩해 놓은 해병대의 용감 무쌍을 인정한 이승만 대통령은 ‘神인이 경찬한 공훈’이라고 격찬하여 해병대가 최강 부대임을 증명해 주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신현준 장군은 2004년도에 해병대 발전기금으로 자신의 재산을 헌납하였다. 해병대에서는 이 기금을 바탕으로 ‘신현준 장학회’를 설립하여 해병대 가족들 중에 생활이 어려운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90세 가까운 나이에든 해병대에 대한 이러한 애정을 보여준 신 장군의 모습은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란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자료제공 _ 인천보훈지청 보훈과 (430-0125)

(http://www.incheon.ac.kr) 새소식

- 등록기간 : 7월 4일(월) ~ 8일(금) 우리은행 가상계좌 입금

문의 _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학부 (770~8502~3)

경제아카데미 교육 참여하세요

인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는 우리시의 '여성단체 활성화(테마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경제를 이해하고 경쟁력을 키워가는 여성'을 주제로 경제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합니다.

- 일시 : 5월 24일 ~ 6월 28일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장소 : 롯데백화점 8층 강당 (사롯데홀)
- 내용 : 경제아카데미는 돈의 획득과 사용에 있어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경제 태도와 습관을 형성케 하자는 교육입니다. 이 모든 것을 부모님이 실제 역할모델이 되어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며 부모의 소비습관을 따라가기 쉬우므로 부모 스스로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지혜로운 경제관리를 통해 아이에게 살아있는 경제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문의 _ 인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429-6250)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 기간 : 상시
- 대상 :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과 그 배우자
- 내용
 -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 제공
 - 입당의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 제공
 - 아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금전·물품·음식물 제공

복잡한 물류를 한 눈에



복잡한 물류 관련 법과 규정을 해석을 곁들여 일목연하게 정리한 물류법령집이 처음으로 나왔다.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홍명호(건설교통부 서기관) 씨는 30여년간의 물류 관련 법령 제정과 관련 정책 수립 경험을 토대로 집필한 ‘알기쉬운 신물류법령’ (도서출판 두

남)을 최근 발간했다. 이 책은 일반 물류 관계 법령 뿐아니라 화물터미널, 유통단지, 공동집배송단지 등 각종 물류(유통)시설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법령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물류 업계 관계자,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물류 담당 공무원, 물류학과 교수, 물류 관련 연구원등이 업무 수행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도서출판 두남 (02-478-2066)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자동차세 과세대상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 부상의 소유자 (1기분 : 6월 1일, 2기분 : 12월 1일)
- 제1기분 납기 및 납부장소
 - 납기 : 6월 16일 ~ 30일
 - 납부 장소 :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 등
- 인터넷 납부제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납부제도 : 17개 시중은행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
 - 한 국 씨 티 은 행 (구 한 미 은 행) 인 터 넷 뱅 킹 (www.goodbank.com)납부제도 : 계좌이체, 카드납부, 대출납부(한국씨티은행 계좌소지자에 한함)
-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7~10인승 전방조종자동차(봉고, 그레이스 등)에 대하여는 승용자동차임에도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지방교육세는 2005년부터 과세)
 - 전방조종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는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시세감면조례 제11조의2)
-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지 않고도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가산금의 부과, 등록번호판의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지방세법 제196조의14)

• 자동차세 문의처

군·구청	전화번호	군·구청	전화번호
중 구 청 세무과	760-7240~7245	동 구 청 세무과	770-6292~6296
남 구 청 세무과	880-4183~4189	연수구청 세무과	810-7190~7195
남동구청 세무과	453-2271~2276	부평구청 세무과	509-7527~7529
계양구청 세무과	450-5253~5254	서 구 청 세무과	560-4230~4239
강 화 군 재무과	930-3292~3293	옹 진 군 재무과	880-2151~2156

• 연세액을 일시에(1월중) 자진납부하면 10%의 세액을 공제하여 줍니다.

- 신청방법 : 위 문의처에 전화,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청

문의 _ 시 세정과 (440-2555)

-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품 제공
 - 주례행위 제공
 - 위반행위시 처벌 및 포상금 지급
 - 일반 유권자가 정치인등으로부터 위의 내용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상시 부과함 (단, 주례의 경우 과태료 200만원)
 - 신고·제보시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함
- 문의 _ 시 선거관리위원회 (1588-3939, 425-3939)

제8회 서울시여성백일장 열립니다

한국여성문예원에서는 매년 서울여성을 대상으로 서울시여성백일장을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역문학 활성화와 여성문학인 발굴의 기회균등을 위해 문화관광부의 후원으로 전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제8회 서울시여성백일장-오래! 이 나라의 딸들이여! 어머니여!>를 개최합니다.

- 응모자격 : 전국 만24세 이상의 성인여성이면 누구나
- 일시 : 6월 16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 중구구민회관 내 대강당
- 부문 : 시, 수필
- 상금 : 장원1인 100만원 / 우수(부문별 2인)4인 각30만원 / 가작(부문별 4인)8인 각20만원 / 장려(부문별 10인)20인 각10만원
- 접수 : 6월 16일전까지 이메일로 미리 접수 가능합니다.
- 참가비 : 7천원

문의 _ 한국여성문예원 (02-2268-9210
kimdok6888@hanmail.net)

인천여성의광장 2005년 제3기 수강생 모집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전문인력양성 및 여성교류의 중심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여성의 광장이 2005년 제3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 6월 13일(월) ~ 15일(수)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속후 인터넷 수강신청
- 교육대상 : 인천시 거주 여성 (정원미달 및 야간과정은 남성 가능. 단, 체육과정 제외)
- 교육기간 : 7월 7일 ~ 9월 30일 (단, 전문어학과정은 6개월)
- 수강료 : 월 2만원
- 접수방법 : 6월 13일 ~ 15일 (3일간) 인터넷수강신청 → 6월 17일 컴퓨터추첨을 통한 홈페이지 게시 → 6월 22일까지 수강료 납부 → 수강등록완료 <홈페이지 : www.incheonwp.go.kr 은행계좌: 한미은행 428-03055-254 여성복지관>

분 야	교육프로그램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별도 본인부담입니다)	
전문직업교육	어학장기교육 (6개월과정)	전문미디어영어회화, 전문일본어회화, 전문중국어회화
	웹디자인기반, 플래쉬애니메이션제작, 홈페이지와소핑몰제작, 컴퓨터활용능력(국가자격증), 컴퓨터 OA, 워드프로세서(국가자격증), 컴퓨터프로그래밍언어(C, Visual Basic), 토익, 영어회화첫걸음, JPT시험대비반, 기본중국어회화, 기본일본어회화, 기본미디어영어회화, 건강다이어트관리사(민간자격증), 한식조리기능사(국가자격증), 신나는상차림, 공인중개사문제풀이(국가자격증), 독서지도사, 화훼장식기능사(국가자격증), 부동산재테크(공·경매포함)	
문화·체육교양교육	사진아카데미, 생활건강식, 스케치교실, 서양화교실, 생활원예, 웰빙기공요가, 페즈댄스, 발리댄스, 태보다이아트댄스, 헬스, 여성자전거교실	
무료교육	나에게로의 여행(성평등한 인간관계와 인생설계), 전통예절과 다도	

문의 _ 인천광역시 여성의광장 교육전산팀 (815-7101~3, 연수구 동춘동 920번지 구 인천차량등록사업소 부지내)

식물클리닉센터가 문을 엽니다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민들이 생활원예를 통해 농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물클리닉센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식물클리닉센터는 가정에서 키우는 화훼, 채소 등의 원예식물에 대한 재배방법과 화분 분갈이 요령을 알려주고 병해충, 생리장해 등에 의해 생육이 좋지 않은 식물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물론 그에 따른 약제 등은 무료 제공합니다. 또한 집안에 공기정화 식물의 기능을 최대한 이용 할 수 있는 배치 방법과 관리요령 등에 대한 상담 지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야생화전시포, 유리온실 등에서는 다양한 식물을 접할 수 있고 원예체험실에서는 양액재배시설과 각종 분갈이 활동 및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아이들의 학습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주말은 둘째, 넷째 주에 사전 예약

문의 _ 시 농업기술센터 원예축산팀 (440-6376, 427-5959)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6월~7월 홈경기일정

6월 5일(일)	오후3시	인천 vs 전남	문학경기장
6월 11일(토)	오후7시	인천 vs 부산	문학경기장
6월 18일(토)	오후7시	인천 vs 대구	문학경기장
6월 25일(토)	오후7시	인천 vs 서울	문학경기장
7월 2일(토)	오후7시	인천 vs 전북	문학경기장
7월 10일(일)	오후7시	인천 vs 성남	문학경기장

※무료입장 : 초등학교 6학년 이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온 고 지 신
溫故知新

옛것을 익히고 그것으로 새것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모양은 "케익"이며, 그 맛과 내용물은 우리의 전통음식인 "떡"

삼국시대이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전통음식인 "떡"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떡케익전문기업

떡파는사람들의 "떡케익"

이젠 떡케익으로 기쁨을 함께하세요!

<http://www.dcake.co.kr>



예약주문이나 하루 전 주문하시면
인천, 부천 전 지역 무료배달해드리며,
일반떡, 혼수떡, 돌, 백일, 답례떡등
예약하시면 제작하여 무료배달해드립니다.

떡보의 하루
떡케익대표브랜드 TM
상표출원 | 40-2005-004319

T.1544-1582